후원회 소식

통권 220호 | 발행일 2010. 2.22 | 발행인 김호현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정권 규탄대회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정권 규탄 대회'가 2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 되었다. (통일뉴스)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통일원로를 찾아서 · 이규재 의장 유영호 • 6 / 감옥에서 온 편지 • 14 / 회원마당 · 산행기 김양희 • 16 / 옴시롱감시롱 총회 후기 서은숙 • 18 / 논평 권오헌 • 21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명단 • 24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6 / 재정 보고 • 39 / 회비를 내주신분들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 yangsimsu0@gmail.net

남북관계 악화시킬 '북한인권법안'

– 민주주의 · 인권 탄압자들의 오지랖 넓은 내정간섭소동 –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명박정부의 반북대결 자세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부흥계획' '선제타격'을 말하더니 이제는 인권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 2월11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 한나라당의원)는 이른바 '북한 인권법'(대안)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이 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의원회(위원회)'를 두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대사)를 두며 통일부가 관장하는 '북한인권재단'(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20개조와 부칙 2조로 된 한마디로 이북에 대한 체제비방(인권공세)과 인도주의 지원제한 그리고 반북단체들에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 내정간섭법이다.

2004년 미국에 이어 2006년 일본이 주제넘게도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자 유도와 반북단체지원 등 대북체제붕괴 행패를 자행하자 이에 동참하지 못해 발광하던 한나라당이 17대국회에서 김문수의원 등 29명의 이름으로 같은 법안을 내놨으나 집권 열린우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자동폐기 되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동족을 모독하는 내용의 대북압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족을 거냥한 침략외세와 공조체제를 굳건히 해오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북공세법안에 집요하게 매달린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위에서 말했던 17대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의원들이 다투어 4개법안을 줄지어 내놓고 있었다.

바로 황우여의원 등 23명이 낸 '북한인권법안'(2008.7.4), 황진하의원 등 25명이 낸 '북한인권증진법안'(2008.7.21)이 2008년 8월2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홍익표의원 등 10명이 낸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2008.11.11), 윤상현의원 등 20명이 낸 '북한인권법안(2008.11.12) 등이 각각 외통위원회를 거쳐 앞서 2개 법안과 함께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었다. 이들 법안들은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 심사소위에서(2009.9.7) 이른바 전문위원과 통일부가 주도된 정부관계자가 참석심사하여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했고 제284회 국회(정지회) 제2차 외통위에서 (2009.11.25) 법안심사 소위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외통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통일부 등이 '대북인권법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이면서 지난 시기 이승만, 박정희, 전 · 노정권 등의 수구냉전 반북대결유산을 고스란히 받아안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생적인 반민족 반통일 외세공조라는 속성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한나라당(외통위원장)의 이른바 '대안' 에 제안 이유를 보면 '인권을 인류보편의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 북한주민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 이라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인권관련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여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 '이라고 했다.

얼핏 보면 이북주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과연 그러한지 이 법안이 추구하는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만들겠다는 자체의 부당성이다.

모든 법은 규범으로서의 타당성과 사실상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집행의 주체자와 대상자 사이의 문제나 목적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고 당연히 실효성도 없다.

오늘 이남의 모든 법과 제도 정책 관행은 휴전선 이남에만 적용될 뿐 이북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물리적 힘을 동원하지 않는 한 담보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은 일방적인 인권공세에 불과할 뿐이고 내정간섭과 체제비방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이북주민들에 대한 생존권확보를 강조했다면 법제정없이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적십자정신으로 지원하면 될 일이다.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남의 나라에 대한 체제전복책동 등 악의를 가진 법제정은 제국주의적 패권야망의 부시와 네오콘같은 정치망나니이거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반성도 배상도 없이 아직도 독도영유권 등을 주장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같은 역사의 반동세력만이 자행하는 행패이다.

둘째로 통일부에 이른바 '북한인권자문위원회(위원회)' 를 두고(5조) 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 을 수립. 실천한다는 내용의 무모한 내정간섭과 체제비방성이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북의 인권계획과 집행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계획은 이미 통일부가 '부흥계획' 을 밝혔듯이 체제전환 아니면 체제전복 등 반북대결주의자들의 희망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 낼 소임을 갖고 있는 부서이다. 그런데 일부 극우반북단체들이나 할 수 있는 이북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국.내외에 교육 및 홍보하여 대북비방의 국제적 협력을 종용하려는 것은 통일부 소임에 반하는 반통일적 행패일 뿐이다.

셋째로 외교통상부에 대한 이른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를 두어(7조) '북한인권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 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동족에 대한 존엄성의 모독행위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대북인권공세 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북인권대사가 국내에 들어와 반북단체들과 대북비방활동을 했던 사례에서 보듯 한나라당 판 대북비방대사이다.

넷째로 이북주민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 외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못하게 한다(8조)' 는 등 인도주의 지원마

저 통제 감시하며 심지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까지 제약하겠다는 반인도주의 대북제재행위이다. 제한된 지원물자 마져도 전달.분배 감시 등을 강조하고 지원받는 주민이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지원대상자도 영.유아. 임신부.장애인 등으로 제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불되는 돈이 핵무기 제조자금으로 전환된다해서 현물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며 인도적 쌀지원이 군량미로 전용될까봐 옥수수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통일부이고 보면 이른바 북한인권법'은 대북인도적지원 통제법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다섯째 정부는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른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10조) 그 재단을 통해서 반북단체들에 대북비방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부당성이다. 위에서 밝힌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는 것과 같이 '북한인권재단'도 통일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굳이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북한 인권실태조사와 인권개선관련 연구 정책개발,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특수관계 때문에 이러한 기구는 만들 필요가 없다. 확인되지 않은 이북인권실태를 홍보선전하고 국제적으로 전파하여 대북체제비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단'은 반북단체들의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여 대북비방삐라 살포와 북주민기획탈북, 대북체제비방방송 등에 지원하는 등 반통일 반민족행패 비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인권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인권의 유형별 내용별로 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12조) '북한인권에 관한 인권증진방안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 시행하며 북한인권에 관한 상황을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13조)고 하여 반북대결 체제비방교육을 초.중등학교까지 강제하려 한다. 다시 냉전시대의 반공교육이 부활되는 셈이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그 범주에 드는 인권기구들이 있다. 이 인권기구들은 어디까지나 자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인권기구들은 국제연대를 이루기도 하고 국제사면위원회 같은 별개의 국제인권기구도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국가가 다른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기구나 인권법은 없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권유린국가인 미국이 제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인권법을 만들었다. 바로 위에서 말했던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n Right Act of 2004)이었다. 이북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고 반북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붕괴를 노린 야만적 내정간섭이었다. 미국은 왜 이북정권을 적대시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미국의 인권유린사를 보면 알게 된다.

수천만 원주민을 학살하고 수천만 노예무역과 살인적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제국주의 식민지쟁탈전에 뛰어들어 마지막엔 세계 최초의 원자탄을 투하하여 수십만 명을 한순간에 죽이고 수백만 명을 골병들게 했다. 카스트로 정권 붕괴작전 시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진보적 민주적 합법정부를 뒤엎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다. 미국에 동조하는 한 어떠한 독재정권도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최근년에 이라크와 아프카

니스탄을 침공하여 학살전쟁을 감행했고 전쟁포로에 대한 잔혹한 학대로 세계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세계각지에 분쟁을 조장하고 엄청난 대량살상무기를 판매했다.

이러한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든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며 핵선제공격을 선언하고 체제붕괴를 노린 내정간섭법을 만든 것이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후진국인 일본이 이를 뒤따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욕망은 미국과 일본에서 이 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유추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인권과 그 보호수단은 나라마다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권없는 인권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부 제5조 제2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바로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이전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에 배치되는 이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 반인도주의 악법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0년 2월 18일 통일뉴스에 기고.

알립니다

2010년 3월 산행

일시 | 2010년 3월21일 일요일 9시
장소 | 불암산
모이는곳 | 4호선 당고개역

준비물 | 간단한 도시락
회비 3,000원
(시산제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귀영 선생님
신귀영 선생님께 양심수후원회에 큰 성금(2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외항선원으로 일하던 1980년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강제연행 67일간 모진 고문속에 일본에 사시는 친지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간첩사건으로 조작되어 선생님이 15년형, 형님, 사촌동생 당숙 등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고 1995년 만기출소하였습니다. 선생님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로부터 조작사건으로 확인됐고 2009년 8.21일 부산지법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남현 님
이남현님께서 후원성금 5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현님 양심수후원회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목수에서 노동운동, 통일운동가로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유영호 | 회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가운데)이 함께 구속된 이경원 사무처장(왼쪽), 최은아 선전위원장(오른쪽)과 지난 해 11월 27일 보석으로 석방되며 환하게 웃는 모습. (한겨레신문 의왕/강재훈 선임기자)

인터뷰를 위한 첫 만남

이번 만남은 남쪽 통일운동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이규재 의장이다. 그는 이미 언론뿐만 아니라 매월 진행되고 있는 〈6·15한마음통일산악회〉의 산행을 통하여서도 무척 자주 만나 온 지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인터뷰를 위한 만남을 가지려고 보니 내가 그에 대하여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내가 아는 것은 그의 활동에 대한 것일 뿐 그의 개인사에 대하여서는 아는 것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그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자 아침 일찍 남영동에 있는 범민련 사무실을 찾아갔다. 내가 도착하고 바로 뒤이어 도착하신 의장님은 아침에 늦잠을 잤는데, 늦잠을 잤으면 일찍 나와야 하지만 아침운동을 빠뜨릴 수 없어 운동하느라 좀 늦으셨다고 하신다. 자연스럽게 첫 이야기는 체력관리로 시작되었으며, 그는 지난 해 5월 국보법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도 체력관리만큼은 너무도 열심히 하여 당시 교도관들도 놀랐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생활습

관이 73세의 그를 아직도 건강한 통일운동가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매일 아침 빼먹지 않는다는 아침운동이야기를 들으며,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노력이다" 라는 격언을 떠올리며 이야기의 첫마디에서 나는 또 하나를 배우며 인터뷰에 들어갔다.

전쟁과 학살, 그리고 국가보안법

1938년(음력 1937년)에 경기도 안성에서 2남의 둘째로 태어난 그는 9살 때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이후 초등학교 5학년 13살 때(1949)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6.25전쟁을 겪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전쟁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이때 발생하였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북쪽의 인민군도 아닌 남쪽의 경찰에 의해 학살된 것이다. 우리 현대사의 씻을 수 없는 악몽인 '보도연맹사건' 에 아버지가 연루되어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1주일도 안된 7월 2일 학살된 것이다. 그리고 어린 이규재는 어머니와 함께 바로 다음날 그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하여 학살된 아버지의 모습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런 이승만의 반민족적 학살행위는 그의 아버지에 그친 것이 아니라 5촌 당숙, 6촌 아저씨 등 여러 친척들이 학살되었다고 전한다. 이 이야기를 하며 제국주의세력이 침략할 때 항상 그 나라, 그 민족을 이끌 지도자부터 척결하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듯 우리의 역사도 그랬으며,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자신의 육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 슬프고 참혹했던 어린 시절의 악몽을 이야기하며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다. 이법은 본래의 의도가 사회주의자를 척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러시아혁명(1917)과 국내적으로는 3.1운동(1919) 등을 겪으며 1925년 일제는 국가보안법의 원형인 〈치안유지법〉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것은 1948년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탄생한 것이라 한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일본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다면, 해방 후 〈국가보안법〉은 미국인의 보호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며 이 국보법이 이후 이승만, 박정희를 거치며 계속 더욱 개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산 도선사(道詵寺)를 지은 범민련 의장

전쟁으로 북도 아닌 남쪽 경찰에 의해 아버지가 학살당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참혹했던 전쟁을 마치고 그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다 그 뒤 목수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럼 집을 많이 지으셨겠네요?" 라고 반사적인 질문 아닌 질문을 하였더니, 글쎄 다름 아닌 그 유명한 서울 북한산 입구에 있는 '도선사' 를 직접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며 그저 목수라면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는 나에게 목수도 여러 분야로 나뉜다고 일러준다. 여기서 자신은 주로 사찰의 목조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그 유명한 절을 바로 내 앞에 있는 이규재 의장이 지었다니??...켁켁^^" 앞으로 북한산에 오를 때 마다 그 입구에 서있는 도선사를 보며 '통일운동가' 이규재 아닌 '목수' 이규재를 떠올릴 것을 생각하니 왠지 나의 상상력이 더 넓어진 것 같고 즐거운 일이 하나 더 생긴 듯 했다.

목수에서 운동가로의 변신

1987~88년 6월 항쟁과 더불어 노도같이 일어났던 노동운동의 물결은 목수 이규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게 된다. 그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목수로써 일하며 그저 데모대의 뒤를 쫓아다니며 시위대에 호응하고 그들에게 물이라도 건네주는 정

도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런 그의 모습에 대하여 현재 사이버노동대학 대표인 김승호씨가 자신에게 "형님은 당시 큰 주전자에 물만 들고 다녔죠"라며 지난 날을 이야기한다고 웃으며 지난 날을 회상한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사회운동은 그저 배우고 뜻있는 유명인사들만 하는 것이지 자신처럼 못 배운 노동자가 낄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또 직접 발 품을 팔아 몇몇 사회운동단체를 찾아가 함께 해보고자 하였지만 당시 지식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회운동조직들은 자신을 쳐다도 안 봐주었다며 그 섭섭함을 토로하였다.

이런 그가 사회운동에 본격적으로 결합하게 된 것은 1987년 6월 항생의 성과 속에서 노동운동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면서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건설일용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 세웠고, 이 조직이 건설노조에 결합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노동운동가로 변신한 것이다. 이로써 이제는 더 이상 그도 시위대의 선전, 선동의 대상자가 아닌 시위 당사자로 운동 조직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의 선거 공약, '통일과 비정규직' 문제

내가 학창시절 마르크스의 책을 읽었을 당시 참~ 강력하게 나의 의식을 흔들어 깨운 말이 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 있는 글인데, 거기에서 마르크스는 "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규재 의장 역시 자신이 목수로서 일용건설노동자라는 사회적 존재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영세사업 노동자' 에 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변혁의 힘을 크게 강조하였다. 그러며 왜 이들이 변혁의 맨 앞장에선 주체세력인가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마르크스, 엥겔스의 혁명론이 동원되며, 그들이야말로 식민지노동자의 2중 착취에 또다시 정규노동자로부터 배제된 착취 속에 신음하고 있으며 가장 착취받는 자들에게 가장 변혁적인 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며 지금 대기업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노총의 모습을 비판한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영세사업 노동자' 들의 조직화에 대하여 지금 보다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다.

노동운동가에서 통일운동가로

이들 비정규직 등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이 1997년 민노총 부위원장에 출마하며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의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 바로 이런 '비정규직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영세사업노동자' 를 조직화시키지 않으면 민노총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통일문제' 였다고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것은 한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라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노동자 이규재를 지금의 통일운동가 이규재로 만든 근본적인 힘일 것이다.

통일이야기를 하며 이규재 의장은 지금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통일운동의 난관 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조국통일의 긍정적 모습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첫 번째로 이야기 소재는 얼마 전 세계 금융평가기관인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이었다. 북의 우수한 인력과 자원 그리고 남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여 통일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발표에 낙관적인 동의를 하였다. 지금 보수세력과 언론들에 의하여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통일비관론을 볼 때 골드만삭스의 전망이나 이규재의장의 견해는 그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규재의장의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통일이 남북의 상호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때문이라는 '+알파' 식의 단순논리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제국주의침략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수많은 사상이 발전하였고 그러한 사상들은 통일된 조국의 앞날에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커다란 힘이 되어, 우리 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만들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말을 하며 지난 날 중국의 백가쟁명의 시대가 오랜 이야기 같지만 지금의 중국을 가능하게 했던 사상적 힘이라면, 우리의 현대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사상투쟁도 훗날 통일조국의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운동의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 간 평양 여행의 설레임

1999년 봄(4.26~5.3) 민노총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규재의장은 처음으로 한반도 북부의 나머지 조국 땅을 밟게 되었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직항기가 아닌 중국을 통해 들어갔던 터라 압록강 위로 비행기가 날아갔는데, 그때 "지금 조국의 압록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너무도 궁금하여 창 밖을 보았지만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도와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압록강을 지난다는 그 말에 너무도 가슴 벅찼고 흥분되었다고 한다. 당시 그 얼마나 흥분되었을까는 아마도 〈6·15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으로써는 상상하기 힘든 흥분이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있었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그저 민간인 교류의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행사가 이듬 해 있었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한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 상호신뢰가 확보되지 못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이 축구대회가 남북 상호신뢰를 가능케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결론, 그래도 역사는 흐른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규재 의장님께 최근 통일정세를 물어보았다. '정세'라는 질문에 왠지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할 줄 알았지만 그 답변은 단순 명쾌하였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시대는 간다"며, "역사라는 것은 도도한 강물과 같은 것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6·15시대를 그 어떤 놈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명박정권이 아무리 반통일적 정책을 자행해도 나는 웃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6·15선언으로 그 핵심으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였다. 결국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요. 누가 하라고 하고, 말라고 하여 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민족끼리'는 결국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 외세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인터뷰의 마지막을 말을 쏟아낸다. 역시 통일운동단체의 수장다운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규재 의장의 이러한 말을 들으며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한 링컨의 유명한 말이 떠올랐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리고 이제 이 말을 "Reunification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란 말로 미국에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엄마의 투쟁은 결국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

- 쌍차파업관련 양심수 이창근님 가족과 만나다 -

임미영 |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요즘 누가 보더래도 주강이가 제일 행복합니다 주강이는 또 행복한 기분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구 나누어 줍니다. 말로 노래로 몸짓으로.... 다섯 살 주강이에게 아빠가 설날 선물로 뽕하고 나타나주었기 때문입니다.

주강이가 알지 못하는 감옥이란 곳에서 엿새 전에 나온 아빠는 지난 시간의 싸움이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할 싸움이 곧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묵직한 주강이를 안아올릴 때 마주한 눈빛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 이 안정감 충만한 구도를 감히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자본주의의 꼭지점들이 곤두박질치는 영향 속에 있는 노동자들은 만만치 않은 시간 동안은 죽을 듯 힘들겠지만 무한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날것 그대로의 환한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강이 가족처럼 멋진 사람들이 저렇게 싸워주고 있는 한 말입니다.

벌써 작년 여름의 일이 되었습니다.

쌍용차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지난한 시간들은 고스란히 어린 주강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강이는 고만한 또래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차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쌍용자동차를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야 사랑하는 아빠가 만들어내는 차니 오죽 했겠습니까. 그런 주강이가 덜컥 어른들의 불행한 시간 속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러울 것 없이 자본이 노동자들을 고통의 덫으로 밀어넣었던 시간들이 곧 주강이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바퀴의 진화가 곧 인간의 삶의 진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인간의 이기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단순한 상품이 되어 순전히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게 되자 자본가들의 폭식으로 생산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자본이 단물 다 빨아먹고는 노동자들을 생산현장에서 쫓아냅니다. 마구 버립니다. 숫제 기계만도 못한 지경으로 내몰았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 절체절명의 아우성은 곧 아비규환이 되어 곧 많은 사람들을 살아있지만 죽음만도 못한 세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이를 또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부모들을 공황상태로 내몰았습니다. 그 여름날 동안 공권력이 조장한 공포심은 아이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만연된 공포는 공기처럼 아이를 파고 들었습니다.

파업기간동안 주강이는 집에 돌아오면 쟁반이며 책이며 큰 차들을 쭈욱 바닥에 늘어놓고 엄마를 넘어서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내는 구호소리를 흉내내며 엄마! 나 경찰이야! 못들어와...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차마 힘이 미약해서 막을 수 없지만 안전한 집 안에서는 스스로 경찰이 되어 엄마를 막았던 것이라고 엄마는 분석해보지만 그런 아이를 보는 엄마의 가슴이 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번은 연대대오가 공장정문 근처까지 왔는데 주강이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경찰에게 막혔습니다.

그때 경찰은 개인집까지 몸을 숨긴 사람들을 집안까지 좇아가서 다 붙들어 갔는데 엄마조차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서웠으니 그것을 엄마품에서 본 아이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때가 네 살이었는데 그날부터 매일 배앓이를 하고 오랫동안 설사를 하고 했답니다. 그때 주강이네는 천안에 살았는데 왕복 70킬로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도 아이도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옥쇄파업의 노동자들이 바깥에서는 또 가족들이 그렇게 싸워 그 싸움이 끝나고 주강이 아빠는 어린 주강이를 위로해줄 시간도 없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지금 그렇게 주강이네 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임금이 12월부터 체불이 되었고 주강이 아빠 기준으로 50-70만원정도 나왔답니다. 제작년 12월부터 1월중에 법정관리 들어가고 그 뒤로 파업기간까지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오다가 파업 들어가서야 아예 안나오다가 파업끝나고 나서 겨우 체불임금이 아주 조금의 목돈이 되어 나왔지만 그 사이 진빚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답니다.

그 전에도 넉넉하게 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에 입사하고 그곳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여긴 노동자들은 마흔 즈음에 이르른 나이였기 때문에 집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물론 예상되겠지만 집값의 70퍼센트 정도가 되는 돈을 은행융자를 끼고 사야하고 또 거기다가 자동차공장에 다니니 쌍용차를 오랜 할부조건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듯이 쌍용차직원들은 또 쌍용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쌍용자동차가 오죽 고가의 차입니까. 우습게도 쌍차아니면 공장에 주차도 잘 할 수 없게 되는 판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 융자금에 차 할부금에 아이들 학원비에 기본 갚아나가야 할 돈이 이 정도이고 보면 노동할 최소한의 조건을 회사가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커녕 무자르듯이 싹둑 잘라냅니다 한 노동자을 해고하면 그 노동자에게 줄줄이 엮여 있던 가족들은 죽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걸음 한 걸음, 입 한 입, 한 움직임, 도대체 돈 들지 않는 것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아주 당분간은 친척들 이웃들 도움받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꽉 채워 받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일뿐입니다. 발 동동 굴러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곧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평택시가 자체 조사를 했답니다. 왜 쌍차직원들을 다른 곳에 취업이 안되는지.

일단 쌍용차출신이기 때문에 회사분위기를 이상하게 바꿀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꺼려서 안되고 또 임금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되고 세 번째 다른 회사 관리자들이 30대인데 쌍차출신들은 삼십대후반에서 사십대라 그 사람들을 오면 회사 위계가 안 잡힌다는 이유로 다들 기피해서 취업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쌍차 직원이 자랑이었던 것이 이제는 마치전과처럼 무거운 짐이 되어 발목을 붙잡는 격이 되었습니다

여러 직업을 알아보고 있지만 대리운전은 너무 흔해서 수입거리가 되지 못하고 추석 때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나 당진까지 나가서 하루 일거리 하고 버섯따는 일 등 갖은 일을 해보지만 일시적이어서 아마 안하는 것만도 못한 일이 대부분일 것이고 아이키우는 엄마들이 인근 마트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주강이 엄마 이자영님이 생각하기엔 그것보다 더 안스런 것은 정서적 상황이랍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다고 합니다.

파업끝나고 남편이 몸성히 돌아왔구나하구서 끌어안고 그래 다행이다했지만 행복에 겨운 것도 잠시이고 남편들의 무기력한 모습들을 부인들이 견뎌내기가 힘이 들고 남편들조차 후유증이 심해서 거의 공황상태에 빠져 있고 잠도 못자고 깨어보면 남편이 옆에 없어서 찾다보면 베란다에 나가있고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조차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세끼밥은 차려야하지 저렇게 가만있는 남편이 걱정되지만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하는 부인들에는 남편의 상황이 더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구속양심수들이 어느 경우의 양심수보다 많이 힘들어 했던 이유도 파업기간에 폐쇄된 공간에서 수백명의 사람이 대치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고 차라리 대치라도 하면 정신차리고 싸울텐데 싸우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마냥 망봐야 되는 상황이 너무 오래였고 폐쇄적이고 뜨거운 열기 아래 최루에 맞아가며 싸움이 없이 시간이 길어졌던 것 그 사이 이미 많이 병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견뎌낸 것 자체가 위대하지만 그 힘든 상황이 해소될 여지없이 곧 바로 구속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정리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간부들도 가족들도 역사적으로 이전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 말하자면 밑천이 없었던 것도 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현재 가대위 활동은 왕성하다 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투쟁이 일단락되면서 이리저리 보내는 시간 속에 가족들의 상처가 어떤 식으로든 치료가 필요하다 하여 금속노조 문화국에서 심리치료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평택에서는 세 번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것마저 너무 무거운 방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긴장된 정신과 육신의 이완이 필요한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데체 이완이 안된다고. 그나마 모인 사람들은 전부 구속자 가족들이었는데 사실 남편이 감옥에 있는 기간에 무슨 수로 이완이 가능했겟습니까.

최근에 한 번 강사를 초청하여 연극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무도 못하겠다고 도대체 자기 속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할 만큼의 상처가 깊어서 그래서 말을 뱉는 순간 무너질까 하여 가슴 속에 시커먼 돌덩어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냥 싸우다 구속되면 되면 모를까 그 파업기간 석달 속에서 마지막 한 달 잔인한 진압은 깊은 상처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밖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말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정작에 안에서 또 가족들은 밖에서 결합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몇 번 왔다갔을 때 애초에 기대안했다가 막상 찾아오니까 나름 기대했다가 훅 꺼졌고 그러다가 공권력이 정문을 막는 순간 기댈 카드는 바깥에서의 총파업 뿐이었지만 총파업도 전혀 위력적이지도 않아서 그때 많이 절망하고 결국 우리 힘으로 이 사태를 끝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이 것을 끝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자영님도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노조원조합원들이 있고 밖에서 준비해서 쳐주어 칠 때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언론과 국민이 압박해서 사회를 뒤흔들어놓아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든지 칼자루는 공장안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기간 파업이 진행되고 성과물은 없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아 아! 정말 영웅적 투쟁의 결과물에 다들 헛헛하여 누군들 미치고 말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가족대책위원회 운영위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한상균지부장님의 가족은 다른 조합원 가족들이 보호해줄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시선이든 그렇지 않든 시선이 주목되는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지부장이다보니 손배청 가압류에서 빠짐없이 걸리고 빚도 많습니다. 그전부터 현장조직활동으로 남편이 집에 돈을 안갖다주고 지금까지 부인 혼자 다 감당하고 있으니 오직 힘들겠습니까. 한상균지부장의 부인은 선고가 있던 법정에서도 이자영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미 각오한 일이라 울지를 않았지만 확인사살 받는 느낌이 어떨지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이자영님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하게는 이번 1월부터 장투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정하게는 해고자들 중심으로 금속노조에서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무급휴직자로 선정된 노동자들에게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삼사백여명이 되는데 회사에서 언제 불러줄지 마구 기다리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그야말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셈입니다.

갈등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지난 일이든 앞으로의 일이든 말입니다. 기나긴 대치 국면에서 기존현장조직 사람들은 이미 빠져있었고 정말 가족을 지키려고, 또

내가 싸워야 옆에 해고자도 막을 수 있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해타산없이 지도부를 신뢰하여 파업을 오래 끌어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 지부장에 대한 신뢰가 큰 힘이 되었으며 한동안은 패배의식에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추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 회사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백억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쌍용자동차를 회생시키기로 한 결과 일반조합원들에게 내려진 가압류는 다 회사에서 취하를 했는데 간부들과 대의원들에게 이미 퇴직금의 절반씩은 압류된 상황이고 몇몇 간부들은 집까지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 이자영님의 당장의 바람은 당장에 경제적 처지가 확연히 나아질 수가 없고 복직도 그렇고 새로운 일자리도 어렵고 보면 부모들이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고 제일 약자였던 아이들이 상처받은 채 계속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여러 가지로 도우려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이자영님은 결혼전부터 해왔던 요가를 통해서 내면의 빛을 찾아서 다시 중심을 일으켜세우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듬어가면서 이렇게 살아나간다면 어떤 처지도 능히 견뎌낼 것 같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모든 상황은 다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면 자본주의도 이미 그러하듯 종말을 고하게 되면 노동자이 자본의 착취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함부로 복직을 바란다거나 민주노총에게 우리 좀 살려줘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마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쌍용자동차에서 일하는 것이 좋아서 적이라도 두려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모진 대우를 받고난 후에 지금 복직투쟁하는 큰 이유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뿐이고 보면 빨리 이런 억압된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도정에 있을 뿐 마무리 된 것은 없습니다. 이자영님은 쌍용자동차 파업투쟁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업장들이 받는 힘이 대단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쌍차투쟁은 이명박의 첫 노림수가 성공으로 끝나버리면 다른 사업장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노동자들의 해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또 그러한 사회적 연대의식이 바로 진보적의식의 확장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노조원인 이창근님과는 사회진보운동에서 만나 이자영님이 반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무엇에 반했는가고 물었더니 패기만만하고 그때까지 운동권에서 만난 어느 남자보다 행동력 말하자면 실천하는 힘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자영님은 진보적 정당에서 몸담았다가 나름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실망한 후 나의 모습과 남이 아는 나의 모습과 내가 바라는 모습간에 갈등이 생기고 탐구의 대상이 되다가 결혼직전에 잠깐 요가를 했는데 그것이 몸과 마음에 맞아서 나의 지향이 나의 변화라면 또한 그것이 사람들을 보다 평화롭고 편하기를 원한다면 요가를 통해서 해보자하여 지금 요가를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요가의 정신인 균형과 조화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나가려 합니다. 그것이 곧 공동체의식일 것입니다.

수원에 재판방청에 갔다가 6시가 넘은 시간에 들어온 이창근님과 다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니 그들에게서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이란 결국은 많은 갈등과 모순을 이겨내어 바꾸고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세상에서는 필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뜻밖에 따뜻한 보이차에다가 맛있는 저녁밥까지 대접받고 또 밥보다 더 맛있고 멋있는 이야기 풀어해주신 이자영님과 곁에서 쉬임없이 행복한 향기를 풀풀 불어냈던 아들 주강이랑 8개월의 긴 감옥살이에서 풀려나 더 많은 일들 해나가야 하는 이창근님 때문에 좋은 기운 설선물로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창근님은 쌍용자동차노조조직부장으로 2009년 8월 9일 구속되었다가 2010년 2월 13일 출소했습니다.

법원이 법묵살하는 마당에 법무부라고 법을 제대로 지키겠나?

「재소자에 보낸 '내복온정' 반송 왜?」(한국일보, 2010년 2월 8일자)에서의, 법 위반하고도 변명 늘어놓는 법무부의 천연덕스런 뻔뻔함을 보노라면 이의제기한 사람들이 되려 미안할 지경이다.

2009년 10월 1일부터 법무부는 '티셔프, 러닝, 팬티, 양말, 내의, 우표, 편지지, 편지봉투'의 교정시설내 반입금지 지침을 내려보내고 교정협회가 제공하는 물품만을 구입하도록 수용자에게 강요하고 있는데(*트라이 겨울내의 24,840원 겨울 티셔츠 13,970원 등에) 문제는 티셔츠 러닝 팬티 양말 내의 등 의류관련 〈형사소송법〉제 19조 (접견 및 교통건 등)에 의하면 '..... 의류, 식량, 의료품들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 그럼에도 가족 친지들에 의한 교정시설내 의류반입 허용의무를 규정한 위 형사소송법 조항을 묵살하고 법무부는 명백한 법위반의 지침을 각 교도소 구치소에 하달한 것이다.

하기사 형사소송법 제262조 2를 위반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범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언론에 반짝 논란만 있었을 뿐 그에 대한 처벌은 커녕 법원이 앞장서서 아무런 하자 없다고 오리발이나 내미는 마당에 언론에서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 교정시설의 만만한 재소자들 상대로 법묵살하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

(1) 형사소송럽 제 91조에는 미결 수용자들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기결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2) 교정시설내 위화감 조성 방지하기 위함 등 상투적인 위선적 말장난으로 때우면 되지 않을까?

(3) (*실상은 재소자를 볼모로 쥐어짠 재소자 가족 친지 등의 영치금이 은퇴한 교도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단체인 교정협회에 흘러들어가도록 만든 얄팍한 꼼수)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소자들의 쓰던 옷가지들 마저도 반입금지하는 작태와 재소자 착취행태(예를 들어 의정부교도소에서 840원 하는 수정테이프를 원주교도소에서는 1,340원에 팔면서 리필을 팔지 않기에 수정테이프 리필 왜 팔지 않느냐고 항의 했더니 원주시내에서 세금 포함 7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리필을 930원에 구입하도록 하는 착취 등)을 보면 재소자 등쳐먹는데 골몰하는 법무부와 그 산하교정시설의 그림이 그려지는 판인데 교정은 무슨 얼어죽을 교정인가!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있다고 교정시설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그 결과 왜? 성범죄자들의 60% 이상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재범률이 높은가도.

2010년 2월 8일

- 원주교도소에서 김명호

봄 비

정관호 | 출소장기수 선생님

대한과 입춘 추위를 넘기더니
자욱한 안개 속에 촉촉히 내리는 비
앞으로 올 눈이 얼마간은 남았겠지만
숲을 가로질러 바람을 타고 오는
봄의 발구름 소리가 들린다

말이 씨가 된다니
수많은 세월 주먹을 내지르면서 외쳐온
그 우렁찬 겨레하나 되기의 메아리
저 빗속에 씨알로 맺혀 내려서
온 천지를 푸른 희망의 잔디로 깔아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여위는
내 형제자매 조카 어린이 들에게
먹을것을 보내겠다는 사랑의 손길을
도끼로 내리찍듯 하는 냉혈한들
그 얼어붙은 배알을 둘러빼거라 봄비여

자주와 평화의 두 바퀴 수레가
힘차게 내닫는 저 드넓은 지평
나도 너도 처지지 말고 달려나가
돌아가는 바퀴 구으름을 따라서
밀며 땅기며 민족대행군을 펼치잖으련

이제 더는 이대로 가만있지 못할
새 해 신새벽의 움트는 봄기운
이 땅이 좋아서 찾아왔던 철새들
돌아가는 그 날개 위에 우리의 소망을
나도 실어 띄울게 너도 띄우거라

거기 닿으려는 우리의 손길
이리로 뻗으려는 뜨거운 정 새기면서
추적이는 빗소리처럼 다정하게
울려오는 발소리처럼 믿음직하게
저벅저벅 봄이 오고 있다.

금강산에 다가가기

김양희 | 양심수후원회 회원

몸매 때문인지 눈이나 비는 커녕 햇살 가득한 날에도 잘 넘어지는 편이다. 일부러 걸려 넘어지려 해도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작은 돌멩이에도 엎어지기 일쑤이니 눈이라도 오늘 날엔 벌벌벌 떨며 거의 기어가는 상황이다.

게다가 며칠 전 운동부족을 탓하며 시작한 요가가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게 됐으니 오늘 산행은 안가겠다 마음을 먹은 터였다. 그러나 오늘은 여성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윤경언니의 유혹(산에 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쥐포를 주겠다고 했음ㅋㅋ)과 산행을 취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발걸음을 옮겼다.

2010년을 맞아 첫 산행인 가운데 오늘 산행지는 북한산으로 6.15산악회는 금강산관광이 조건 없이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평창동 북악파크에서 만난 회원들은 TV에서나 볼법한 부잣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을 지나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와 미끌미끌한 길을 한참 오르고는 캠페인을 시작!

이날 권오헌 6.15산악회장님은 "해마다 신년 산행으로 북한산을 오르는데 올해도 80세가 넘은 선생부터 젊은이들까지 각계각층의 회원들이 참여했다"며 "6.15선언 10주년을 맞아 이 기세를 이어 6.15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며 올해는 금강산은 물론 백두산까지 가겠다는 국민적 염원이 이뤄지도록 결의를 다지자"고 밝혔다.

장기수 김교영 선생님은 "산악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활동 중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백을 키우는 6.15산악회가 결성 후 3년을 맞았다"며 "새해에도 건강한 체력으로 6.15선언을 이행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원진욱 사무처장은 "올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뤄야할 중요한 시기로 올해 6월 지자체 선거를 기점으로 6.15선언 지지세력들이 준엄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또한 6.15선언 발표 10주년을 맞아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산악회원 모두 생활과 삶 속에서 투쟁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신현익 산악대장은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선언을 통해 "6.15한마음 통일산악회는 2010년 새해 첫 산행을 하면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 더 나아가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반북대결정책을 그만두고 6.15,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힐 것 △남북사이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 각종 대화 협력 사업을 확대 강화할 것 △조건없는 금강산 개성관광 즉각 재개와 이미 민간부분에서 합의한 백두산 관광을 비롯하여 남북사이 왕래의 길을 넓혀야 할 것 등 정부당국 측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로 금강산관광은 바로 재개될 듯했으나 우리 정부와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강산관광은 물론 남북관계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눈덮힌 북한산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악대장의 선창에 맞춰 구호를 외치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사이의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선언하며 자주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6.15산악회는 지난 2008년 신년 산행을 금강산에서 한 바 있다. 이때 나는 이전 금강산 취재를 갔을 때 알게 된 구급봉사대원 철남이를 만났었다. 순박하게 웃으면서도 누군가 다칠까 늘 세심히 살피고 손이라도 베면 제일먼저 뛰어와 반창고를 붙여주던 모습이 떠오른다. 또 이전 금강산 취재 때 만났던 산림원 남송이, 그는 꽃피는 봄에 오면 맛난 갈비를 대접하겠다고 하던 아이였다. 금강산길이 막히고 나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곳에서 일하던 북녘의 친구들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지이다. 다시 그 길이 열리면 그들이 그대로 그곳에서 우릴 맞을까? 어서 빨리 금강산에 가서 북녘의 철남이와 남송이의 안부를 묻고 싶다.

평창동 일선사 코스로 올랐다가 정릉 쪽으로 하산한 일행은 김교영 선생님의 초대를 받아 선생님댁으로 향했다.

해마다 선생님은 회원들을 초대한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사정이 있으셔서 초대를 하지 못했고 올해 다시 초대를 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 매 끼니 식구끼리 밥 해먹는 것도 귀찮다 하는데 30명이 넘는 이들을 모두 초대하는 것이 보통 마음을 먹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이를 해마다 해오셨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어쨌건 그 큰마음 덕분에 나도 일행을 따라 선생님댁으로 향한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벌써 복도부터 맛있는 냄새를 맡은 터라 더욱 시장해진다. 회원 몇이 산에 오르지도 않고 아침부터 선생님댁으로 가 음식장만을 했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이들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이미 산 같이 부쳐놓은 부침개에 보쌈, 두부김치, 돼지껍데기 무침, 잡채, 북어국 한상 가득한 음식들로 입은 물론 눈과 코도 호사를 부린다.

거실에 둘러 앉아 서로가 서로에게 새해 덕담을 나누며 한잔, 두잔 특히 이날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담금주를 한잔씩 나눠주는 병권(?)을 갖고 계신 노수희 선생님의 입담이었다.

술자리는 물론 남과 북, 어느 나라나 병권을 갖고 있는 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며 노래면 노래, 재담이면 재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솜씨로 좌중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노수희 선생님을 보며 '진정한 병권을 갖고 있구나' 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회원들이 "앞으로도 혜안으로 많이 부족한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며 세배를 했다. 모두들 '올해도 힘차게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했을 것이다. 산악회원들의 마음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 하루 속히 금강산 길이 열리고 남북이 다시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램해본다.

20년을 함께한 사람들과 서산 농부의 집에서…

서은숙 | 양심수후원회 회원

서산에서 총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참석하기로 마음먹는 일은 , 서울 어디라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쉬웠다. 더군다나 전주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걸쭉한 막걸리같은 옴시롱감시롱 식구들과 하룻밤을 마음껏 얘기하고 웃을수 있다는 것은 서울 특별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벅찬 일이었다. 게다가 박근직 선생님과 봉례 언니가 진짜 농군이 다 되어 터 잡아 뿌리내리고 있는 서산이 아닌가! 2년전 서산에서 열린 때에는 아들이 진돗개 녹수의 머리를 쓰다듬다 물려 병원으로 달려갔던 추억(?)도 있던 곳이다 . 그때와 만찬가지로 이번 총회에도 기껍게 마음을 내주는 남편의 외조 덕분에 가족동반의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봉황이 내려앉았다는 봉락리에 사는 봉례언니는 사과 보다 더 붉은 얼굴을 하고 우리를 맞아 주었고 박근직 선생님은 사람맞을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셨다 .새 단장을 한 집안에서는 주인처럼 부엌을 차지하고 있는 길자씨와 새얼굴의 노총각 신현익씨, 길자씨의 상사였다는 얼굴 좋게 생긴 정훈철씨가 이미 도착하여 일잔을 하고 걸치고 있었다. 손 크고 부지런한 길자씨는 김치부침개 반죽을 한대야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걸 다 어떻게 할 요량인지 ... 진도가 고향인 남도의 인심이 그런걸 보고 배웠으니 그녀인들 어쩌겠는가?

두런두런, 지나간 시간을 두루 살피고 있자니 앳된 중학생이던 두리가 목 하나는 더 자라 셋째 세미를 데리고 나정옥씨와 나란히 들어섰다. 바깥에서는 모성용씨와 신현부씨의 특유의 웃음소리가 봉락리 마당을 우렁우렁 채우고 데굴데굴 구르며 사람대신 인사를 해왔다. 지희씨가 자기보다 큰 아들딸을, 박윤경씨는 애인 같은 아들을, 헐리우드 영화배우 머리를 한 여혜정씨는 우리딸과 동갑내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서른 다섯에 늦 결혼을 하고 허겁지겁 키운 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보니 세월의 흐름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뿌듯함과 함께 우리들의 젊음.열정에 대한 아쉬움이 잠깐 야릇하게 교차하였다. 아이들 자라는건 어른들 늙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봉례언니의 우스개소리에서 그간 우리들의 수고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이들끼리 이방 저방으로 오감시롱 떠들어대고, 어른들도 새해인사와 묵은 해 못다한 안부들이 옴시롱감시롱, 오감시롱의 잔치 도 슬슬 시작되었다. . 식전에 출출한 식구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굴을 섞어 만든 김치부침개가 그만이었다. 그렇게 두꺼운 부침개는 안먹겠다던 현부씨 내외의 투정에도 아랑곳없이 김치부침개는 불티나게 팔렸다.

어둠이 짙어질 무렵 , 안마당의 장작불로 한사람씩 모여 들었고 바야흐로 잔치는 무르익었다. 기와 지붕 위로 허리 잘린 감나무가 고즈넉한 정취를 더해 주었고 , 마침 대문 밖 동쪽 하늘에서는 보름 달이 떠 올랐다. 까치집을 얹은 감나무와 보름달은 잠깐이나마 내 고향 빈 집을 떠올리게 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각각 저마다의 향수에 젖었으리라. 그러나 향수에 젖기에는 이십 년의 세월을 엮어온 많은 벗들이 함께 있고, 밤새 마실 막걸리와 장작불 위에서 끓고 있는 안주가 너무 푸짐했다. 입을 쩌억 벌린 굴과 조개의 짭짜름한 바다맛, 그것이 아무리 맛나도 오감시롱 식구들과 함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행복한 맛이었을까?

부른 배를 주체하지 못할 때 쯤 되어서야 권오헌선생님, 김호현 회장님, 늦기는 해도 모임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이용준씨, 앉아 있기만 해도 실내를 꽉 채워주는 양호철씨 오랫동안 석사 논문으로 두문 불출했던 이정규씨까지 모두 참석하게 되었다 . 오랫만에 뵈었

옴시롱감시롱 총회에서

으뜸일꾼으로 선출된 김길자회원

는데도 권선생님은 세월도 비켜가는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다. 아무말씀 하시지 않는데도 선생님을 뵐 때면 항상 전주에서 혼자 나태해지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물심양면으로 항상 주변을 챙기는, 주고지비 김호현 회장님은 이번에도 회원들에게 나눠줄 CD 와 책 한 보따리, 새단장한 실내 분위기에 딱 맞는 벽시계까지 들고 온 터였다. 늦은 저녁 식사가 끝나갈 쯤, 혜순 씨 내외는 아들 딸과 제사를 지내고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왔다.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총회가 시작되었다. 모성용회원의 사회로 1년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 처음부터 불거져 끝내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은 회비문제였다. 김길자 회장님은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마다 뒷바라지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무수리' 역활을 하는 자신이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하였다. 지난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건대 과거의 열정만큼 열심히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겸손의 변을 하였다. 짖궂은 원로들은 그럼 잘 할 때까지 한번 더 하면 되겠다며 다시 회장으로 슬슬 밀고 가는 분위기였다. 일년 만 더 오감시롱을 맡아 고생 해 달라는 애원을 이런식으로 들이대며 압박했고 또 그런식이 길자씨에게 먹히고 있었다. 한편 부북스 출판사를 부부가 함께 차렸던 모지회 총무의 회계결산 보고에서는 푼수작전이 통했다. 회비가 내 돈인지, 내돈이 회비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다며 혹시 펑크난 곳이 있다면 재산압류나 차압(?)하라고 협박하면서 총무직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총회 전 준비모임에서 정리된 운영위 의견이었다. 옴시롱감시롱이 엄연히 독자적인 모임인데도 전현직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열성 회원들이 양심수 후원회 일을 겸하다보니 자연 후원회의 활동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월모임도 경조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 오감시롱의 가을기행도 후원회 기행으로 대체하는 등 정기모임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자평과 함께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활동이 너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에는 오감시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권선생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다.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임을 이끌어 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며 오감시롱에 대한 자부심을 회원들 스스로 충분히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격려해주셨다. 전회원이 돌아가면서 밝힌 소감과 다짐은 운영위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다. 이십년 전통의 오감시롱 뿌리가 그리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에게도 오감시롱이라는 모임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미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비록 일년에 한번 총회밖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오감시롱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항상 나에게 충분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전주에 살면서 힘들고 외로울때, 오감시롱은 나의 '애틋한 친정' 이었고 마음이 흔들릴때는 '든든한 뿌리' 였다.

20여년이 흘러 어언 우리 모임의 주축은 사오십대다. 자식도 있고 직장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다. 폭이 넓어진 우리들 역활에 조금은 더 너그러워져도 되지 않을까?그리고 경조사를 포함시켜 월 모임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제는 모임의 개념도 우리들 자녀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른들의 들러리로서가 아니라 모임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있도록 고민해 봐야하는 시기이다.

참석이 힘들어 일상 모임에서 늘 힘이 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서산에서 일곱개의 모임을 하고있는 박조직, 박근직 선생님도, 알콜 중독과 그 치료를 연구하고 있는 이정규 회원도, 오병철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오게된 양호철회원도,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으로 아이들과 치열하게 부대끼고 있는 나, 서은숙이도 분명 오감시롱의 동행꾼이다 .

12시가 되어갔다. 총회에서 회원들의 어떤 다짐 보다도 단연 빛났던 것은 신입회원 등극이었다.그동안 참석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준이 모호하였다던 신현익씨와 정훈철씨가 정식으로 정규직 회원으로 승급(?)했다. 끝내 제자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한 서운함도 제쳐두고 이현근 선생님의 제자, 김부일씨도 스승의 반열에 올랐다. 범민련일로 고초를 겪다 막 출소한 남편 이경원씨도 신입회원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이만한 신입회원을 확보할 경쟁자는 없었다. 원로들은 길자씨가 회장을 맡은 덕분이라며 회장 직을 거세게 밀어 부쳤다. 호현이 형 사주로 이용준씨가 김길자를 연호했고 회원들도 동참하여 끝내 길자씨에게 회장직을 받아냈다. 총무는 박윤경씨가 되었다. 앞으로 총무는 얼굴도 받쳐 주어야 할수 있다는데 앞으로 박윤경씨가 쭈-욱 오감시롱 총무를 맡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말수가 없다가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몇 사람에게만 하중이 간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김호현 회장님도 목소리를 내릴 정도로 단호하게 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지고, 뜨거운 감자 회비문제로 거의 30분을 토론했다. 월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아 돈을 낼 기회조차 박탈 당한 억울한 회원이 있었지만, 회원의 기본 임무인 회비 납부의 의무를 게을리한 파장은 꽤 길었다.

설왕설래 끝에 한 가정당 연 회비는 1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밀린 회비는 자신이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내기로 결정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회장단이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로 결정함으로서, 회비미납자의 단죄가 끝났다. 이 모든 사안을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드디어 뒷풀이가 시작 되었다. 겨울밭에서 잘라낸 배추 속과 해산물을 안주로 막걸리가 몇 순배 돌아도 취하는 사람은 없었다. 혜순이의 혀꼬부라진 귀여운 주정 말고는, 요즘 뒷풀이는 예전에 비해 너무 점잖아졌다. 밤새 사람들을 잠 못들게하던 걸판진 노래판도 막상 없어지고 보니 그 성가신 젊음이 그리워졌다. 잠이 들면서 권선생님께 부석사로, 개심사로 가자고 이른아침부터 깨우시면 안된다는 호현이 형의 으름장(?)을 끝으로 총회는 막을 내렸다.

가로 세로 잠든 아이들은 아이티의 난민촌을 연상케 할 정도였지만 나름 오감시롱의 질서 속에서 잘도 적응했다.

어른들도 이젠 긴 밤이 버거운지 서둘러 얼기설기 잠이 들었다. 이렇게 오감시롱은 20년 나이를 먹은 것이다.

2년만에 그리운 이들을 만나 그들을 추억하느라 며칠 밤을 보내며 이글을 쓴다. 이 글로 그 동안 모임을 이끌어 가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들과 수고를 나누지 못한 미안함을 대신하려 한다. 총회에서 함께 정을 나누지 못한 보고픈 동료들에게도 건강하시라는 안부를 전하고 싶다.

개성공단 활성화의 열쇠는 6.15 공동선언 정신이다

-금강산 · 개성관광 재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녹여야-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새해 들어서도 남북관계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비상통치계획 '부흥'이니 '선제타격'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서해에서는 연사흘째 포성이 울리고 있다.

일부 망상적인 극단주의 논리가 그 무슨 '점령통치'의 호기를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단의 고통을 안고 65년을 살아오고 있는 온 겨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동족끼리의 소모적인 대치국면을 살 속 깊이 아파하고 있다. 불신과 대결이 이어지면 언젠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그 어느 곳보다 가공할 화력으로 맞서고 있는 이 땅에서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이 서로 주장하는 체제, 제도의 우월성을 비롯하여 건설된 재화도 문화유산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모두는 잿더미가 될 것이고, 전 세계는 되풀이된 동족상잔을 비웃을 것이며, 탐학한 패권주의 세력들의 점령 쟁탈장이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 끼칠 일이다. 그래서 이 최악의 재앙과 비극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적인 불신과 대결을 당장 거둬드리고 화해협력과 자주통일로의 민족적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는 오늘이다.

수십 년 만의 혹한에 100년만의 폭설이었지만, 자연의 봄은 어김없이 다가와 쌓였던 눈더미도 얼어붙었던 대지도 녹여내고 있다. 그런데 오늘의 남북관계는 마치 봄을 시샘이라도 하려는 듯 어렵게 대화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극단주의자들의 인위적 장애 조성으로 모처럼의 봄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졌듯이 북측은 새해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었고, 이에 남측은 대통령 새해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았고 관계개선의지를 표명했었다. 이러한 유화적 기조는 이미 지난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원자바오 중국총리 등의 평양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김기남 특사조의방문단장 등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의방문과 청와대 면담, 북 외무성 미국국장 등의 워싱턴 등 동북아협력대화 참석, 보스워즈 미 대통령 특사의 평양 방문과 오바마 대통령 친서 전달 등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6자회담을 통한 한(조선) 반도의 비핵화라는 조율된 바탕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었었다.

이러한 남북사이, 북미사이의 대화국면이 봄기운이었다면, 이를 시샘한 꽃샘추위의 당사자들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당국자들이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통일부는 근거도 없이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비상계획 '부흥'과 '통일대계탐색연구' 등을 통해 사실상 '점령통치 흡수통일' 속셈을 드러냈고,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른바 '북한정책포럼'에서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는 요지로 대북 제재를 강조했으며, 국방부장관은 선제타격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계획과 발언들은 어느 일간지' 사설이 말하듯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대수롭지 않으며 오히려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듯한 인식마저 묻어난다.'

참으로 민족존망이 걸려있는 긴장국면으로의 이 같은 무책임한 발언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7 · 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기본합의서, 6 · 15 공동선언, 10 · 4 평화번영선언에 배치되는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행패일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무모하고 호전적인 폭언이 아닐 수 없다.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6 · 15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처럼 극단적인 발언과 이를 의식한 대응포사격훈련 등으로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월 1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잡혀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부분의 남북당국 간 대화가 끊기고 있는 가운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몇 개 안되는 대화창구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28일 예정대로 회담에 나가겠다며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29일엔 다보스 경제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BBC와의 회견에서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있다"며 "양측 간에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사전에 만나는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른바 북핵포기, 국군포로, 납북자 말이 빠졌다. 언론들이 다투어 보도하듯이 남북정상회담에 진일보한 발언이었다. 이 같은 발언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그리하여 전쟁의 먹구름을 거둬내고 봄소식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불신과 대결자세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한다. 바로 개성공단의 연유가 된 6 · 15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2월 1일에 열릴 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지난 19일~20일까지 진행된 해외공단 공동시찰에 대한 평가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그런데 평가회의 과정은 불신과 대결의 전형을 보여주었었다. 평가회의 의제로는 남측에서 낸 통신, 통행, 통관으로 말해지는 3통문제와 북측에서 제기한 북측근로자 임금문제와 토지임대료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었다(언론보도).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이틀 동안의 평가회의에서는 공동합의문 등이 전혀 없었다.

다만 남측에서는 통일부 대변인과 회담을 마치고 온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북측에서는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 기사(평가회의 참가자와의 대담)를 인용한 언론보도들로 양측 입장을 어림하게 되었다. 줄여 말하면, 4차 실무회담의 의제로 남측은 '3통문제와 숙소건설문제'라고 했으며, 북측은 '로임(임금)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다음접촉을 동의해주었다'였다. 이렇게 실무회담 의제와 관련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의제뿐만이 아니었다. '부흥' 계획 등에 따른 남북 관계의 장애조성 문제, 해외공단 임금실태 제시와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임금개선문제 등 남북은 엇갈리는 내용을 말했다.

여기에서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와 관련한 한 인터넷 신문의 회담평가 글로 대신한다면 김영탁 대표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답변하면서 〈있었던 일을 없다고 말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러한 실수는 전파를 타고 전국적으로 〈오보〉가 되고 말았다. 이정도면 국민들로부터 〈거짓말 브리핑〉이라는 질책을 받아도 통일부는 할 말이 없게 되었다. 통일부(정부)는 이번 진실게임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열린다면 쟁점은 아무래도 북측근로자 임금과 토지임대료 개선문제일 것이다. 의제설정에서부터 남측은 구태여 거론되지 않았다 했고 북측은 해외공단의 구체적 사례를 들며 개선책을 말했기 때문이다. 남북은 경색국면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공단 공동시찰을 했고, 남과 북이 제기한 3통문제 근로자 숙소 근로자 임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평가회의를 가진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 통해 임금문제 등에서 합리적인 합의 이뤄야

개성공단은 남북사이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면서 평화와 통일로의 발판이었다.

공단이 자리 잡은 곳은 군사분계선에서 10km의 거리에 있는 북측으로서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곳에 있던 군사시설을 비롯한 공장, 기업, 농업시설의 지역주민까지 이주시키면서 공단 터전을 남측에 내준 것

은 6 · 15 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살린 민족적 화해와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위함이었다. 2천만 평의 터에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가 계획되고 있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11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3만 9천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남측 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누적 생산액 7억 2,859만 달러, 1억 1,950만 달러를 수출했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개성공단의 투자매력도와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연구' (2005.8)에 따르면, △동일 언어의 이점 △질 좋은 노동력 △저렴한 임금, 지리적 인접성 등을 들며 "해외투자지역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개성, 칭다오, 베트남 공단과 비교할 때 투자선호도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임금만 보더라도 베트남 134달러, 칭다오 100달러인데 비해 개성공단은 57.5달러였다. 생산품을 불과 7시간 만에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지리적 인접성, 육로를 통한 저렴한 운임, 북측 근로자의 언어소통원활과 높은 교육수준, 기술수준, 저임금 등을 꼽았다. 이전 정부 때처럼 화해협력국면이 이어지는 한 개성공단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공단이 세워지고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원자재가 준비되어 있다 해도 이러한 요소들을 가치로 창출해 낼 수 있는 노동력 투여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대우, 바로 노 · 사 합의에 의한 합리적 임금책정을 하게 된다. 개성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4만여 명에 이른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문제는 공단운영관리의 중요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북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임금(로임) 문제와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임금만을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북측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은 57.5달러이다. 이것은 2009년도에 5%로 인상된 금액이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만여 원 가량일 것이다. 숙련노동자들이 하루 임금도 안되고 가장 열악한 비정규노동자 평균 임금의 1/20 수준이다. 이것이 사실일까 할 정도였다. 공동시찰 평가회의에서 북측은 해외공단 임금수준이 200~300 달러이고 500달러가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측의 김영탁 대표도 100달러 이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4월 22일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실질임금 수준은 중국 칭다오의 1/3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 수준은 중국보다 8% 높다고 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개성공단에 관한 소고' 에서 북측 근로자의 임금 75달러(사회보험료 등 포함)는 우리 돈으로 93,000원이라면서 300% 인상한다 해도 281,000원으로 남측 최저임금 900,000여만 원의 30%라며 이러한 수준의 임금인데도 기업 상황이 어려운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노동 용역의 보수라는 사전적 의미 말고도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 보존과 가족의 최저생계 그리고 그 사회의 평균적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는 국경을 넘어 국제 노동규약이 규정하고 있다. 생계비 계산에서 남북 간 차이가 인정된다 해도 남측 비정규직 노동자의 1/20 수준의 개성공단 임금체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북측은 해외공단 임금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북측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인 120 달러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남북당국 간 대화의 유일하게 가동되는 작은 창구이지만 함께 만족하는 합의를 이루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금강산, 개성관광과 관련 남측에서 수정 제의한 실무회담도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지 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3일 통일뉴스기고입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No.	이름	소속	직책	사건명	구속 날짜	수감지	적용법규	만기일	기/미결
1	강동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 08. 06	수원구 310			항소(3년)
2	강성철	구속노동자후원회(전해투)	인권팀장(회원)	구속노동자 후원활동(쌍용차 파업 연대)	2009. 10. 06	수원구379			항소(8월)
3	권기백	금속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	09예인선 파업 투쟁	2009. 12. 29	울산구23			미결
4	권순만	금속노조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 08. 06	평택구 221			항소(1년2월)
5	권순욱	기타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9. 04. 22	인천구1304	병역법	2010.10	기결
6	김달식	노동자	화물연대	박종태열사추모전국노동자대회	2009. 07. 05	대전교 2756	집시		항소(2년)
7	김대원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 01. 23	서울구 187	특공,화염병		항소(5년)
8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 08. 06	평택구 228			항소(3년)
9	김명호	민교협	전 성균관대 교수	석궁 사건	2007. 01. 17	원주교1352		2011.01	기결
10	김선영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2009. 09. 03	평택구 211			항소(3년)
11	김성환	용산4 가동 상가공사 철대위		용산4구역 상가 철거 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 10. 27	서울구 141			항소(5년)
12	김수억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07년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2009. 08. 07	안양교1187	업방		항고(2년6월)
13	김연호	촛불시민 연석회의		촛불 1주년 집회(5/2)	2009. 11. 13	서울구67			미결
14	김영익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9. 06. 10	화성 직업훈련 교	병역법	2010.12	기결
15	김완희	노동자	화물연대	박종태열사추모전국노동자대회	2009. 06. 12	홍성600	집시	2010.12	기결
16	김재호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 01. 23	서울구 171	특공,화염병		항소(5년)
17	김재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 08. 06	평택구 223			항소(3년)
18	김정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 08. 06	평택구 224			항소(3년)
19	김주철	민주노총 울산본부	본부장	09예인선 파업 투쟁	2009. 12. 29	울산구20			미결
20	김주환	재야	전철연(용산신계)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 01. 23	서울구 20	특공,화염병		항소(6년)
21	김창수	성남 단대동 철대위	회원	용산4구역 상가 철거 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 10. 27	서울구 155			항소(5년)
22	김태수	범한택시노조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2004.2.13	영등포교 1071		2014.02	기결(10 년)
23	김학주	이주노동자(중국교포)		국가보안법 위반 건	2005. 10.	전주교 2509		2010.10	기결(5년)
24	김 혁	금속노조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 08. 06	수원구 320			항소(3년)
25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09철도노조 파업	2009. 12. 13	서울구 113			미결
26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용산4구역 상가 철거 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10. 01. 11	서울구 71			미결
27	문한준	홈리스 공동행동	대표	관악지역 노점철거 반대투쟁	2009. 05. 21	서울구 3			항소(2년)
28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 02. 01	광주교 5051	국보	2010.08	기결(3년6월)
29	박래군	용산철거민참사 범국민 대책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항의투쟁	2010. 01. 11	서울구 90			미결
30	박범성	대경건설기계 고령지회	지회장	덤프노동자 8시간근무 쟁취투쟁(88고속도로공사)	2010. 01. 08	대구교 28			미결
31	박은국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9. 07. 03	화성직업훈련교617	병역법	2011.01	기결
32	박종만	촛불시민	개인	용산참사 항의촛불집회 참가	2009. 12	서울구 186			상고(2년)
33	박진수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대의원	기아차 화성공장 안전사고 항의투쟁(법정구속)	2010. 02. 18	수원구 354			항소(6월)
34	백승덕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9. 12. 07	영등포구 1107	병역법	2011.06	기결
35	블라 마르셀	이주노동자/콩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2007. 01	화성보호소			행정소송중
36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 10. 24	대구교 45	국보	2010.10	기결(4년)
37	송효원	13기 한총련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건	2009. 12. 30	영등포구 4010	국보		미결
38	아비드 칸	이주노동자/파키스탄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2009. 6	화성보호소			행정소송중

2010년 2월 19일 현재, 민가협 조사 집계
총 65명

No.	이름	소속	직책	사건명	구속 날짜	수감지	적용법규	만기일	기/미결
39	안 중 현	광운대 (민주노동당)	전 부총학생회장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연대	2009. 11. 20	의정부교872			미결
40	오 정 민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병역거부	2009. 06. 02	서울구 2572	병역법	2010.12	기결
41	왕수금	이주노동자/중국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2009. 01	화성보호소			행정 소송중
42	유 정 희	원일교통노조	해고노동자	원일교통노조 민주화투쟁	2008. 09	안양교 1487			항소(2년)
43	윤 기 진	재야	범청학련	범청학련 한청련 불탈퇴	2008. 02. 28	대전교 4005			
44	윤 창 호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	6.11 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 투쟁)	2009. 08. 09	대전828			항소(1년6월)
45	이광남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	고 박종태열사 추모 노동자 민중대회 (09.5.16)	2010. 01. 31	대전교 2148			미결
46	이 기 호	촛불시민		쌍용차문제정부 해결 촉구 노동자/민중 대회(7/25)	2009. 07. 28	수원구 380			항소(1년6월)
47	이 동 우	노동자	기아차 회성(사내하청)	07년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2009. 08. 07	안양교1169	업방		항고(2년6월)
48	이종회	용산철거민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항의투쟁	2010. 01. 11	서울구 155			미결
49	이 충 연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 01. 28	서울구 29	특공		항소(6년)
50	인 태 순	재야	전철연	용산참사 진상규명촉구	2009. 03. 03	서울구 241	공방	2010.09	기결(1년6월)
51	장 민 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 10. 24	대전교 4009	국보	2013.10	기결(7년)
52	장 영 희	재야	전철연	용산참사 규탄	2009. 04. 27	서울구 216	특공,협박	2010.04	기결(1년)
53	정진영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대의원	기아차 화성공장 안전사고 항의투쟁(법정구속)	2010. 02. 18	수원구 354			항소(6월)
54	조 익 렬	노동자	화물연대	박종태열사추모전국노동자대회	2009. 05. 16	대전교987	집시		상고(1년6월)
55	천인철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대의원	기아차 화성공장 안전사고 항의투쟁(법정구속)	2010. 02. 18	수원구 324			항소(7월)
56	천 주 석	상도4동 철대위	회원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 쟁(용산 대참사)	2009. 10. 27	서울구169			항소(5년)
57	천 춘 배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 총파업(08년)	2008. 10. 21	부산교415	폭력	2010.06	기결(1년8월)
58	최 국 종	촛불시민	실업노동자	용산참사 규탄 촛불집회(2/4)	2009. 02. 04	안양교소		2011.02	기결(2년)
59	최 기 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 08. 06	평택구 225			항소(3년)
60	최 기 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 10. 26	대전교 4003	국보	2010.03	기결(3년6월)
61	최 병 승	금속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복직 투쟁	2009. 05. 16	부산구 6026			항소(1년10월)
62	하동기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병역거부	2009. 01	서울구1905	병역법	2010.07	기결
63	한 상 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 08. 06	평택구 226			항소(4년)
64	한 일 동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2009. 08. 06	평택구 227			항소(3년)
65	허 현 무	민주노총	정치국장	2009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 05. 02	서울구 109		2010.03	기결(10월)

01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등 2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은' 대북삐라(비방전단지)' 20만장을 북으로 띄워 보냈다. 국민연합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북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을 대형풍선 2개와 소형풍선 5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실린 인공기 2개를 불에 태우는 등 물의를 빚었지만 경찰은 이를 저지하지않았음

경술국치 100년이고 조국광복 65년이 면서 분단 왜곡 65년이고 동족상전60년에 4.19혁명 50년, 5.18광주민중항쟁 30년, 6.15공동선언 발표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출소하신 장기구금 양심수, 아직도갇혀있는 모든 양심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며 뜻한 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 빌겠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전 지도위원이셨던 박용길 장로님 찾아 뵙고 새해 인사를 드렸고 고성화 선생 님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선생 님들께 전화로 새해 인사 드렸습니다.

이북의 〈로동신문〉과 〈조선인민국〉 〈청년전위〉는 새해 공동사설에서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고 강조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공동사설은 각 부문별 지난해 성과를 밝히면서 6.15공동선언 발표 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북남관계 개선' '민족의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해야한다' 고 강조하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한다' 면서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해야 한다' 고 강조하다. 또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 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 우리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 평화 · 친선의 기치높이 나라들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는 일에 힘차게토쟁해 나갈 것 이라고강조하다.

02

이북에서 신년 공동사설 관철을위한 10만 평양시 군중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가 2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되었다" 고 보도하다. 대회에서는 최영림 평양시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보고를하면서 '인민 생활향상에 총력을 집중하여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꽃피워 나갈 것' 을 강조하다. 이어 각 계층 대표들의토론이 이어졌으며 대회 후 군중시위가 있었으며 이날 평양시 군중대회에는 "김영일, 최태복, 양형섭과 근로단체, 성, 중앙 기관 책임 일군들, 10만여 명의 각 계층 수도시민들이 참가하였다"고 통신은 전하다.

03

강도 일제침략군의 범죄적인 성노예 피해자인 김순악할머니가 향년 82세로 유명을 달리하다. 1928년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일제의 아시아 태평양 침략전쟁이 한창인 1943년 취직을 미끼로 강제로 끌려가 중국 북경, 장가고에서 일본군 성노예를 강요 당했음. 조국광복후 1946년 귀국, 여러곳을 전전하다 200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 정대협의 인권캠프 증인 잡회 등에 참여했음. 이로써신고한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88명으로 줄었다고 정대협이 밝히다.

04

지난해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마무리한 결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 실장 등 14명이 해임되다. 또 1차 시국선언 이후 기소된 대상자 89명 가운데 41명이 정직 1~3월의 중징계를, 1명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번 대규모 징계처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나서겠다는 방침을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작년 초 '용산참사' 가 발생한 뒤 2월부터 4월사이 참사 현장인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건물을 불법 점거해 분향소를 차리고, 재개발 사업을 위해 건축폐기물을 나르던 화물차를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철연 간부 노모(52,여)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히다.

경기 안산 상록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안산지역 정당. 학생.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양대 중장년미화원 해고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연말 해고된 33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원청인한양대학교측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미화원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경영합리화일 수 없고, 노동조합을 통해 법적 권리를 찾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며 "한양대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고 촉구하다,

철도노조는 회사와허준영사장 등을 상대로 50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다. 철도노조는 1차 조합원 소송에 4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미 취합된명단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하다. 철도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소장에서 "사쪽은 지난해 10월 '노조가 조기에 공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파업을 유도하는 전략' 을 결의하고 다음달 24일 단협 해지를 통보해 결국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며 "이는 악의적 불법행위이므로 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하다. 철도노조는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4538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 노조에 대해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또한 오는 12일 명단이 취합되는 대로 2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국정연설을 하면서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들과 전방위 외교를펼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하다. 국정연설에서는 · 글로벌 외교 더욱 강화 · 경제활력높이고 선진화 개혁박차 친서민중요 실용 등 3대 국정운영기조를 말하고 · 5대핵심 과제를제시하다.

05

명동성당에서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 결성회의가 열리다. 회의에서는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장례기조와 명칭

을 정하고 장례위원회 구성안을 토의 결정하다. 장례 기조는 범국민적 애도 속에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의 결의를 다지며 살인적인 재개발정지권한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되도록 하다. 장례명칭은 ''용산참사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으로 하고 고문, 장례위원장(상임장례위원장 이강실, 조희주) 집행위원회 호상등으로 하고 장례위원은 정당,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7000여명으로 하기로 하다.(임미영 권오헌 함께하다.)

- 용산참사현장 남일당 앞에서 '용산참사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 주최로 '장례위원회 발족과 일정 등 발표 기자회견' 을 열다. 장례위원회 이강실 상임공동위원장의 장례위원회의 기조, 고문, 장례위원장, 집행위원장 등 오전 결정사항을 밝혔고, 조희주 상임공동위원장은 범국민 추모기간의 주요 일정 및 장례절차를, 권오헌 장례위원회 고문 의 범국민추모기간 및 범국민장 동참 대국민호소문을,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대정부 메시지를 낭독하다.

-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이영 민가협 상임의장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이영 상임의장은 지난 12.31 목요집회에 나오시다 빙판에 낙상하시어 왼쪽 팔목골절상을 당하여 4일 입시 깁스를 했습니다. 아직도 손목과 손이 부어있었고 통증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조순덕 민가협 총무님과 권오헌 다녀오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부당하게 강제 연행 되어 마포 경찰서에 갇혀 조사받고 있는 한총련 송효원 의장을 면회하다. 송효원 의장은 한총련 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년 동안 수배 당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2.30일 국회 앞 72시간 비상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 강제 연행되었음. 송의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 된 상태 였음.(권오헌 다녀오다)

06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2010년 양심수후원회 시무식을 하다. 09년 후원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소회와 반성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역량과 회장단과 사무국과의 소통과 결합 등에 논하고 새해를 맞아 후원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결의하다. 권오헌, 김호현, 임미영, 모성용 함께 하다.

-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연구소(NBR)의 마이클 피네건 선임 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한.미 공조확대' 를 주제로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펜타곤(미 국방부)은 아프가니스탄이 됐든 그 밖의 세계 다른 어느 지역이 됐든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뺐다가 넣는 전략 성유연성에 대한 '실습(exercise)' 을 시작해야 한다" 고 주장하다. 피네건 연구원은 "적어도 대북 방위의 핵심부분인 주한미군 사령부 차원에서 한반도를 비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지만, 그 예하의 보병대대, 공병중대, 폭발물해체반 등은 다른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을 것" 이라며 또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직면할 수도 있는 가장 어려운 작전은 아마도 북한 붕괴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될 것" 이라며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해외에서 (해당국의) 안정화 및 전후 복구작업에 공동참여하는 것은 북한 붕괴후 시나리오에서 한.미가 공조할 수 있는 기술과 절차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제국주의 패권야망을 드러내다.

-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는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철거민들의 항소심 개시에 앞서 수사기록 3천 쪽 공개를 촉구하다. 용산범대위는 최악의 재판으로 기록될 1심은 검찰의 공소를 탄핵할 수도 있는, 김석기 전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조사한 수사기록 3천 쪽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다. 참가자들은 "불구속자 1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서울지방법원 합의28부)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록 3천 쪽 공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면서 "만에 하나 검찰이 또다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며 법원과 검찰에, 오는 9일 치러지는 장례식에 이충연 씨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다.

- 보안수사대는 사회주의노동자신문 권호영 활동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다. 이날 11시경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사복경찰 10여명이 서울 영등포 소재 의사회주의노동자신문 사무실로 몰려와 권 씨를 체포하고, 홍제동 대공분실로 압송하다. 작년 10월,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사무실과 권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권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지만, 권 씨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해 왔음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용산참사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충연위원장에 대한 일시 석방을 허가하여 이날 저녁 석방 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저녁부터 장례식당일인 9일자정까지이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여객 수송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다.

07

- 홍제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사회주의 노동자신문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 권호영활동가 연행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제 783회 목요집회가 열리다. 김동순 사무국장의 사회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의 여는 말 양심수후원회 모성용부회장의 국가보안법관련 양심수에 관한 발언과 신동우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범국민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음

-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통일애국지사' 김남식 선생의 5주기 추모식이 열리다. 추모의례에 이어 이계환 통일뉴스대표의 약력소개,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의 추모사에 이어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 황건, 노중선 사월혁명회 전 의장, 장은기 우사연구회 사무국장의 김남식선생님을 추도 말씀이 있었음. 김남식 선생은 1925년 4월 24일 충남 논산에서 출생해 해방 뒤 진보진영에서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통일부,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펼쳤고 2000년부터 통일뉴스 상임고문을 역임했으며 2005년 1월 7일 강연차 일본에 가셨다가 별세하셨음.

- 중구 필동 3층 대회의실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 언론사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당시 정권장악을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들을 해직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위법, 부당하

게 행사한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다. 또한 "신군부는 해직된 언론인 가운데 일부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해직 이후에도 취업을 제한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조치를 취할 필요가있다"고 권고하다.

08

- 부산 역광장에서 전국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가 나흘 간 부분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불법해고 규탄 및 09투쟁 승리결의대회'를 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진중공업 지회 800여명과 울산지회 200여명 등 1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하다. 한진중공업 지회를 지원하기 위해 내려온 전국금속노조 김영재 사무처장도 "수천억 흑자, 1천억 당기순이익에도 70년 역사의 한진중공업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미국발 경제위기를 틈타 대대적인 자본의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시측을 규탄하다 이날 결의대회에 '아저씨들이 사라진다'는 제목의 전단에는 "삼십년간 일해온 한진 아저씨들이 명퇴로 정년퇴직으로 하나둘 쫓겨나고 있다"며 "설마설마하다 명단 떨어지면 끝장이다. 쌍용차가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도 결국 사람도 못지키고 노조도 빼앗겼던 건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30분여 만에 집회를 끝나고 조합원들은 '경제평계 수주평계 결국은 한진중공업 포기인가?', '단체협약 무시하는 일방적구조조정 철회하라', '앞에서는 한진가족 뒤에서는 정리해고나' 등의 내용이 적힌 50여개의 현수막을 펼치고 곧바로 거리로 진출하여 2차선 도로를 차지한 채 서면까지 행진하다

- 이북의 〈노동신문〉 8일자 논설 '북남관계 개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서 "올해 공동사설에 천명된 바와 같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밝힌 것으로 연합뉴스가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북과 남의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며 근본요구"라면서 "'우리 민족끼리'는 특정한 그 누구의 구호가 아니라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이념"이라고 주장하다. 또한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동족과의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란다면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외세가 아니라 민족에 의거하여 동족과 손을 잡고 민족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 '용산참사철거민' 범국민장을 앞두고 민중열사 시신이 안치돼있는 순천향병원장례예식장에 다시 빈소를 차리고 문상객을 받다. 특히 지난 6일밤 구속집행정지로석방된 이상림 고인의아드님이자 용산 4지역 철대위원장인 이충연씨가 상주로손님들을 맞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날 김호현 회장과 모성용부회장, 소수영운영위원, 임미영사무국장, 권오헌 명예회장이 빈소를찾아 고인들 명복을빌고 유족들을 위로하다.

- 용산참사 장례식을 앞두고 정운찬 총리는 한남동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장례위가 밝히다. 정 총리는 10여 분동안의 조문을마치고 거듭 "일찍 오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내다. 유족들은 총리에게 구속자와 수배자들의 장례식 참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해 달라"며 재개발 정책의 전환을 호소하자 이에 "재개발 정책은 정말 고치겠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않도록 잘 고치겠다"고 약속하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0조 이하에서 정한 절차(제2항 토지 점유자에 대한 토지출입일시, 장소의 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적법한 업무로 볼 수 없다"며 평가단의 토지조서와 지적도를 찢고 불태웠다는 이유(업무방해,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심 아무개 씨 등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다. 2008년 9월 16일, 한국토지공사 평가단은 토지감정평가를 거부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 기습적인 토지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삼삼오오'로 모인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왜 감정평가하냐"며 반발했고, 평가단과 함께 마을에 온 경찰은 이들이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며 파주경찰서로 강제 연행했다. 또한 이들의 강제 연행에 항의하고 석방을 요구하면서 파주경찰서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던 주민 21명이 경찰에 연행 당했는데 이들 또한 '당시 상황이 긴급 집회의 성격이었다는 점,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약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불합치결정이 났다는 점, 그리고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합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다. 다만, 공대위 집행위원장 김 아무개 씨, 민주노동당 파주시 위원회 부위원장 안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점을 감안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이었던 탁무권 노원문고 대표가 7일 모친상을 당하여 세브란스병원 장례예식장으로 문상을 다녀오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호현 김지영모성용 조명희이재필임미영 권오헌함께 문상하다.)

09

- 이북의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인권이자 국권이다'는 명제로 나라의 자주권이 확고히고수되어야 인권도 믿음직하게 담보될 수 있다는뜻이 담겨져 있음을강조했다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 매체는 "국권으로 담보되지않는 인권은 사실상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굴종에 지나지 않는 예속적인 '인권'에 불과하다"며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이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외세가 살판치는 남조선(한)에서는 인민들의 인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다" "우리 인민은 어떤 정세 속에서도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진리를 더욱 굳게 새기고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며스스로 선택하고 발전시켜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지켜나갈 것"이라고하다.

- 용산 4구역 재개발 철거민, 살인진압으로 숨진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현 고인들이 참사 355일 만에 이날 장례식을 갖게 되다. 유족들과 장례위원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발인제에서는 추모의례, 상주들의 첫잔올림,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축문낭독, 이강실외 조화주, 정세균, 강기갑, 노회찬, 등 장례위원들의 마지막 잔올림, 임기란 민가협전 상임의장이 추도사와 춤꾼 이상헌의 '길닦이' 의식이 있은다음 유족들의 오열 속에 운구가 이어지다. 대형 영정과 영구차를 선두로 유족들과 장

례위원들이 버스를 뒤따르다. 장충단공원 - 퇴계로 - 명동에 이르러 유족들이 명동성당에 가서 박래군, 이종회, 남경남 등 장례위 호상들을 만나고 다시 영결식장인 서울역 광장으로 떠나다.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대표자들과 정당과 시민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참사 355일 만에 철거민 열사들의 영결식이 엄수되다. '민중해방의 꽃으로 부활하소서' 라는 글이 적힌 무대에는 희생자 5명의 영정사진과 국화꽃이 놓였고, 영결식장 주위에는 '살인진압 진상규명' 등이 적힌 만장이 나부꼈다. 김태연 장례위 상임집행위원장의 개식 선언과 함께 민중의례에 이어 이강실 · 조희주 공동상임장례위원장이 개식사, 성낙경 전철연 사무국장의 열사들 약력보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선생의 추도사, 김정환 시인의 조시 낭독과 민중가수 박준 씨의 조가,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조사가 있었음. 이어 무용가 김미선 씨의 진혼무가 이어지다. 또 야 4당 대표들,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의 조사가 있었음. 조사가 끝나고 검은 상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유족들을 대표해 고 이상림 씨 부인인 전재숙 씨의 유족인사말이 있었음 가수 안치환 씨의 조가가 이어진 뒤 마지막 순서인 분향 및 헌화가 진행되다 영결식이 끝난 후 2시 40분에 출발한 장례 행렬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모습을 담은 대형 걸개그림을 앞세운 운구행렬은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3천여명의 시민들은 장례 행렬을 따라 700미터 가량 길게 늘어서서 노제가 치러지는 용산 남일당 건물로 향하다. 인도에도 1천여명의 시민들이 고인들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고 있다. 남일당 앞에서의 노제로 김소연 금속노조 가륭전자 분회장의 사회로 개식선언, 민중의례에 이어 송경동 시인의 조시낭송, 치도은 민중가수의 조가, 문정현 신부님의 조사, 춤패 '춤' 의 진혼굿. 이성수 고인의 부인 권명숙님의 유족인사, '노찾사' 의 조가 등으로 진행되다. 노제를 마치고 운구행렬은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으로 떠나다. 김호현 회장과 권오헌 명예회장을 비롯한 모성용, 소수영, 김혜순, 김길자, 박윤경, 신현부, 모지희, 임미영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다.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고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헌 5인의 하관식이 오후 8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유가족들과 500여 명의 장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되다. 이규재 공동장례위원장의 조사에 이어 유가족들의 오열과 통곡 속에 "용산을 기억하라" 문구가 새겨진 만장과 장례위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유가족들과 용산4구역 철거민들, 장례위원들은 마지막 제사를 올리며 하관 식을 마무리하다.

10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 주최로 '민주열사 박종철 23주기추도식' 이 진행 되다. 유족들과 사회단체 서울대생 등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사업회 남택범 사무국장 사회로 추모의례에 이어 열사부친이신 박정기 전 유가협회장 인사, 배은심 유가협회장, 박종기 추모연대 공동대표, 권오헌 명예회장, 진보신당, 사회당 대표 등 추도사, 서울대 학생의 추모시낭송에 이어 마치는노래로 '그날이오면' 을 함께 부르고 참가단체별로 분향 재배하는 것으로 마치다.

11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2010년 양심수후원회 새해 인사모임이 있었습이다. 해마다 새해를 맞아 사무국 사무식과는 달리 만남의 집 선생님들과 민가협 어머님들, 지도위원, 감사, 운영위원, 활동 회원들이 함께하여 새해 덕담과 함께 다짐을 하면서 떡국을 끓여 나누면서 화합과 단결을 결의해 왔습니다. 이날은 특히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아드님 결혼을 계기로 맛있는 떡을 해오셨고, 진도에서 특별히 주문해온 홍어회가 입맛을 돋게 했습니다. 후원주점에서 남았던 평양인삼술로 잔을 채우고 모두의 건강과 새해 희망을 위한 건배를 했습니다. 김호현 회장의 인사말과 문상봉선생님, 김규철 지도위원, 김정숙 민가협 전상임의장이 새해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문상봉, 김영식, 박희성, 강담, 양원진 선생님과 김규철 김영옥 지도위원, 강장구 감사, 김정숙 이정림, 조순덕, 임선순 이귀임 어머님들, 김지영 김호현 모성용 소수영 김혜순 김길자 송경용 김동원 장경욱 모지희 임미영 김동순 김지현 이명원 권오헌 등이 함께 했습니다.

통일부는 6.15남측위 농민본부산하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9일 통일쌀 100톤을 6.15북측위 농민분과 위원회로 보내려 한것에 불허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다. 통일부관계자는 전농의 대북쌀지원에 대해 '지원대상이 특정돼 있는 않는 농민단체로 되어있어(사회문화교류이기 때문에) 반출을 반려했다 고 변명하다. 정부는 '농민회 총연맹 이나 '6.15남측위 농민본부' 명의로 쌀을 북에 보내는 것은 순수한 '인도적 지원' 이 아니라 '사회문화교류' 일환이라며 불허조치한 것임.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날자로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발발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시작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 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보도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외무성은 성명에서 평화협정 회담 제안 이유에 대해 한(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풀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국간 적대관계를 끝내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다. 외무성은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교전상태에서는 언제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가실 수 없으며, 비핵화는커녕 회담자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다" 고 거듭 강조했다. 외무성은 "조선반도 비핵화과정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혀 기로에 놓인 가운데 해가 바뀌었다" 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화국(북한)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있는 정책적 목표"라고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조희주. 이수호 등 용산범대위관계자들, 야4당 위원회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배웅 속에 '용산참사 와 관련해 수배를 받고 있던 박래군, 이종희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남경남 의장이 이미 밝힌대로 자진출두형식으로 경찰에 연행 되다. 두 집행 위원장은 미신고 불법 집회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남경남 의장은 용산 철거민 망루농성참여혐의로 부당하게 수배 당하고 있었음

12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주최로 '통일쌀북송불허 통일부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전농 전성도 사무총장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말, 조성우 6.15남측위 공동대표, 권오창 실천 연대 상임공동대표등 규탄발언과 한도숙 전농이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통일쌀 북송을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쌀(식량)을 무기삼아 남북관계 문제를 저

울질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통일쌀북송을 막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민족적 양심이라도 있다면 인도적 대북쌀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촉구하고 2월 6일자 통일쌀 반출 신고서를 통일부에 다시 접수하다.

광화문KT빌딩 앞에서 평통사 범민련 양심수후원회 등 13개 평화통일운동단체 공동주최로 '124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열어 미국측에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다. 최복열 범민련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강연 인천 평통사교육부장의 결의발언에 이어 오바마미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 '핵포기' 복주머니를 주고 받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다.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으로부터 제주 강정마을 최근 소식에 대한 현안보고에 이어 12년 전에 있었던 '조중필 살인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박정경수 간사의 발언과 주병준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위원장의 현안보고, 김종민 남북공동선언 실천 연대활동가가 요구서한 낭독하다. 집회를 마치고추영배 매향리미군 폭격장폐쇄주민대책위고문과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이 미 대사관에 요구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마무리 하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자주통일평화행동'은 지난해까지 이어온 '미 대사관 앞 반미 연대집회'의 변경된 새 이름이다.

통일부는 민주노총대표단 평양방문 요구를 불허하다. 민주노총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 연대방문' 사업을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방북을 추진해왔음. 통일부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등을 고려해서 11일 불허했다"고 밝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연이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방해에 이어, 6.15공동선언 10돌을 맞는 새해 첫 남북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방북불허가 거듭 남용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헌법과 법률의 심판까지 받아볼 예정"이라고밝히다.

아이티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곳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전체 인구 960만명 중 1/3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다. 이날 지진은 "핵폭탄 수개 터진 것과 맞먹는 위력으로 사망자가 최소 10만명 이상, 사상자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지진이 발생한지 이틀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이티 정부 관계자들조차 교통.통신 등이 두절돼 정확한사상자를 파악하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대통령궁이 무너지고 사망자 수가 3만에서 10만명 사이라는 보고를 들었다고 르네 프레발아이티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으나,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다. 펠릭스 어거스틴 유엔 주재 아이티 총영사는 "포르토프랭스가 초토화됐다(flattend).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10만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등 의료시설이 모두 초토화돼 의료장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다. 검찰은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 합류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에게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다.

국회 앞 국민은행 인근에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등록금액 상한제 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노숙농성과 1인시위에 돌입하다. 1인시위를 마치고 2시께 노숙 장소에 모인 30여명의 대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하자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자진 해산을 명령하다. 경찰은 2시30분께 이들을 둘러싸며 대학생들이 준비한 스티로폼 깔개 등 농성물품과 피켓 등을 빼앗고 남학생 6명을 연행하고, 뒤늦게 도착한 여경들이 3시께 여학생 8명을 연행하다. 연행된남학생 6명은 종암서, 여학생 8명은 노원서에서 조사를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지형은 6자회담 재개및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 협정 체결과 북미수교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촉구 국회결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자고 여야 정당에 제안하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연행한 경찰에 항의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긴급 성명을 발표하다. 한대련 소속 학생 70여명은 촛불과 항의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경찰의 대학생 연행을 규탄하며 정부의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 수정과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다. 대학생들은 정부가 제시한 복리 이자율이 턱없이 높기 때문에 취업후 상환제는 원금의 3배를 갚게 될것이라면서 이자율을 낮추고 복리를 단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한진중공업 해고자출신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 건물 앞 노조 천막농성장 바로 앞에 바람막이 없는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다. 지난 2003년 사태를 되풀이 할 수 없다며 김 지도위원은 영도조선소 내에서 열린 '불법정리해고규탄 금속노조 부양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직접 자필로 "죽거나 병신돼가며 평생을 일했던 죄인처럼 쫓겨나는 걸 눈뜨고 자켜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A4지를 나눠주고 단식에 들어가다. 한진중공업의 전신인대한조선공사 시절 한국 최초의 조선소 '처녀 용접공'로 입사한 김진숙지도위원은 1987년 당시 어용노조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뿌리다 해고된 이후 지금까지 복직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1991년 박창수 열사와 2003년 김주익, 곽재규 열사 투쟁을 거쳐온 그녀는 한진중공업과 부산지역 민주노조 운동 역사의 산 증인으로 불리운다. 지난 2007년에는 자신의 20여년간 삶과 투쟁을 '소금꽃나무'라는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러간 가스관, 전력망, 철도망 구축과 관련 "최근 북과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고 하다. 그는 "작년 7월에는 북한과 나진하산간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고, 러시아의 가스담당 공사와 전기담당 공사가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소개했다. 이같은 언급은 200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2015년 북한 경유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방안과 한반도 종단 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구상을 북핵 해결과 연계시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북남관계 개선의 주인은 온 겨레이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남의 일로 생각하면서 적극 나서지 않는 사람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격도, 이 나라 강토

에서 살 자격도 없다" 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특히, 신문은 "오늘의 시대는 말로만 민족의 분열을 걱정하고 통일을 부르짖는 우국지사가 아니라 민족분열을 더없는 아픔으로 여기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무엇인가 특색 있는 기여를 하는 참된 애국자를 부르고 있다" 며, 말로만의 우국지사가 아닌 행동하는 참된 애국자를 강조했다.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0년 신년을 맞아 통일운동 원로인사들이 '2010년, 6.15공동선언발표 10주년을 맞는 각계 통일인사 선언' 을 발표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 를 열어가자고 호소하다. 이날 신년선언식에는 박순경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이종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등 각계 316명의 원로들이 참석하다 통일운동 원로인사들은 선언문에서 "올해는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된 지 100년,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 라며 올해를 "전쟁과 냉전, 분단과 대결로 점철된 민족사의 물줄기를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미래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의 해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10년 전 6.15공동선언과 북미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전환이 온갖 도전과 곡절을 극복하고 마침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보다 높은 단계로 현실화, 구체화하는 결정적 국면을 맞고 있는 것" 이라고 하다. 통일운동 인사들은 정부에 △선핵폐기 노선, 비핵.개방.3000 폐기 6.15, 10.4 선언 이행 △현인택 통일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해임 △금강산 관광 및 대북쌀지원 즉각 재개 △당국간 회담 개최 등을 촉구하다.

정부가 지난해 말 '부흥' 이라는 코드명으로 기존 충무계획을 대체하는 이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합형계획을 작성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하다. 이 신문은 "한·미간 북한 급변사태 대비 책인 '작전계획 5029' 와 함께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비상계획은 과거와 달리 통일부·국가정보원이 공동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통합 매뉴얼'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개념계획' 수준이었던 5029의 작전계획으로 격상하고 행정적 지원책으로서 '코드명 부흥' 을 완성시켜 이북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완비한 것으로 알려지다. 급변사태를 예측한 시나리오는 •사고형(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등) •군 구테타 •주민저항소요 사태등 3~4개 유형으로 나누어 북주민의 이동과 임시수용등을 포함한 급변사태에 행정조치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북이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제재할 것을 남측 당국에 요구했다. 고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북측은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이 지난 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북한 비방 전단이든 풍선을 북측으로 보낸 것을 언급 "남측 당국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난동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행위이며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대역죄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 극우보수단체들을 즉시 해산하고 주범들을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고 하다.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요시위' 가 900차를 맞다. 강일출, 박옥선,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등 일제의 성노예피해자들과 각계사회단체 성원 캐나다. 일본 등에서 온 활동가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등은 발언을 통해 900차를 맞이하는 발언을 통하여 "900차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배상과 공식사죄도 받지 못한 채 많은 피해자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며 일본 정부의 조속한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다. 정대협은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교토, 나고야 등지에서도 900차 '수요시위' 를 맞아 연대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베를린에서 거주하는 대만.한국.일본.독일 학생들이 베를린 브란덴브르그 문까지 촛불을 들고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다. 정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수요시위를 통해 일구어낸 희망의 역사를 통해 여전히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에 뒤덮인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전쟁과 식민으로 얼룩진 과거를 올바르게 해결하여 미래세대에게 평화로운 세기를 물려줘야 한다고 촉구하다.

서울고등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은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호인에게 수사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주게 됐다. 미공개 수사기록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작전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구속된 철거민들의 항소심 재판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에서 농성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7부로 재배당한바 있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 형사2단독(정우영판사)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 강성철님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8개월을 선고하다.

14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남측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과 개성지구 관광이 1년6개월이나 중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이라며 "26일과 27일 금강산에서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을 갖자" 고 제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북측 아태평화위는 지난해 11월 현대아산을 통해 금강산 개성관광을 위한 회담을 제안했었지만 이명박정부는 '공식적인 회의 제의가 아니다' 며 거부해 오고 있었음. 지난 2008년 7월과 12월에 각각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이 재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남북은 오는 19일 개성남북경협 사무소에서 지난달 진행된 해외공단 공동시찰에 대한 평가회의를 열기로 하다. 평가회의에서는 개성공단관련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개성공당 근로자 임금문제, 3통(통신 통행 통관)문제해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다(후원회소식 220호 별도기사참조)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784차 목요집회가 열리다. 김동순 사무국장사회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님의 여는 말 전 양심수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연수를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는 백주선님이 현정세와 앞으로의 변호활동에 대한 발언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삼성비리재벌규탄 발언이 있었음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을 면회하다 민가협 어머님들 권오헌모성용 함께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 (재판장 김필곤부장판사)는 인터넷카페에 이북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구속.기소되었다가 1심에서무죄선고를 받았던 전교조통일 위원회 소속 김00, 최00 교사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재판부는 '김씨등이 올린 자료(사진등)은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그대로 찍은 사진으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했으며 '김일성 회고록과 북한의 통일전선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만 이내용이 동료교사에 전파하려는 목적성이 없어 참고자료를 반포한 것으로 보인다' 며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이동 연판사)은 지난해 1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사무처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업무를방해했다는 혐의로불구속 기소된사건에서 무죄판결을 하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노동당 농성장에 국회사무처가 로텐더홀 현수막을 강제철거한 것은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아니었고 박계동 사무총장실의 문이 열려있어 들어갔으며 신문을보고 있었기때문에 공무 집행방해는 아니라고무죄사유를 밝히다.

15

용산참사 철거민 측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에 출연, 전날 밤 검찰의미공개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경찰 지도부들도 "작전이 무리한 진압이었다", "(인화물질 등이 있는) 상황을알았다면 중지시켰을 것" 이라고시인하는 내용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 정보관리부장 등 참모들이 (진압 지휘에) 상당 부분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들어있다" 고 밝히다. 김 변호사는또 그동안 '철거민들이 화염병을던져 불이 났다' 고 경찰이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당시 현장에있었던 경찰들마저도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못 봤다' 는 진술이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변호사는 이러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기피했던 경찰과 검찰에 "터무니 없는 행태" 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찰 지휘부나 현장 지휘부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이 사람들은 반드시형사 책임을져야 한다" 고 강조하다.

이북의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통해 " '비상통치계획-부흥' 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 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계획" 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보복성전 개시", "모든 대화와협상에서 南당국 제외" 등 강경한 표현을동원하여 대남경고를 했다고 하다 이날 국방위가 밝힌 입장은 세가지다. 첫째 "'비상통치계획-부흥' 을 꾸며낸본산지인 남조선의 현 '통일부' 와 '국정원' 을 즉시 해체하고무엄한 대결계획 작성의주모자들을 민족의 심판대위에 올려놓고 엄벌에 처하는 응분의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둘째 "남조선 당국의 무모한 도발계획이 완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조건에서 '청와대' 를 포함하여 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하여 온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내기 위한 가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 이라고 엄포를 놨다. 셋째, "남조선 당국이 진심으로 사죄하지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 이라고경고했다.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평통사 주최로 '2012년 미선 효순 추모비 건립위원회 는 '2010년, 미선 효순을 생각하는 새해맞이 행사' 를 열고 공식 발족하다. 문규현 신부, 배종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등 각계인사65명이 상임위원을 맡은 건립위는 2012년 6월 13일 10주기 추모제 때까지 국민모금을 통해 경기도양주시 광적면 효촌리56번 지방도로 사고현장에 추모비를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이곳에는 2002년 사건이 발생 3달만에 미2사단이 만들어 놓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건립위는 추모비 건립 사업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도 재개할계획이다. 또한 장기적과제로 사고현장이 일어난일대에 '시주평화공원' 을 조성할 구상도갖고 있다.

혜화동 민가협 사무실에서 민가협 24차년도 3차 운영위원회가 열리다. 이영 상임 의장과 임기란,김정숙,조순덕 전상임의장,김호현 공동 의장 등 운영위원과권오헌 참관자,김동순 사무국장이 함께 하고 김현주 간사가 회의록 기록을 하면서, 사업및 활동보고,재정보고를 함. 안건토의에서는 *양심수 조사사업은 민가협주관으로 하되 양심수후원회와 협력해서 하기로하고 * '민주가족' 을 복간(격월간)하고 *목요 집회는 사전에 주제와 발언자를 합의선정할 것*국가보안법 폐지투쟁 *기타 민생 민주 통일 등 연대사업을 강화키로하다.

16

재일 〈조선신보〉 따르면 이북의 〈민주조선〉은 16일자 '조미관계의 근원적 문제에손을 댈 때가 되었다' 는 제목의논평에서 그 '근원적 문제' 가 평화협정 문제임을 알렸다고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이 신문은 지난 11일 북측 외무성이 미국에 제의한 한반도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상기시키고는 "여기에는 조선반도비핵화를 포함하여 조미관계 개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평화와 안전을위한 믿음직한 담보를마련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정책적 입장이반영되어있다" 고 강조했다고 하다. 신문은 "이번에 우리 공화국정부가 조미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은 조미관계의 전 과정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하나의 명백한 결론에 도달한 것과 관련된다" 고 덧붙였다.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고 문익환 목사 묘소에서 '늦봄 문익환목사 16주기 묘소합동참배' 행사가 진행 되다. 박용길 장로님과 유족들,통일맞이와 시민사회 각계인사 70여명이 함께하여 황인성 통일맞이 집행 위원장 사회로 추모묵념,김거성목사의 추모기도와 찬송에 이어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의 추도사,추모노래 '그대 오르는 언덕' 을 함께 부르다.고인의 둘째 아드님인문이근씨의 가족인사말,참가자들의 헌화순으로 마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오카다가쓰야 일본 외상은 16일 도쿄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북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북의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할수 있다는입장을 정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통일뉴스가 보도하다. 외교부당국자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양쪽의 공동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며 '특히관련국과의긴밀한 공조하에안보리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히다. 양국은 또한 이북의 평화협정논의제안과 관련 비핵화논의가 진전된 이후에

평화협정을 논의할수 있다는입장을 정리하다. 유명환장관은 또한 '평화협정문제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핵화과정이 추동력을 얻은 이후에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며 '형식이 남북이 됐건,미북이 됐건 4자가 됐건, 6자회담이 먼저 재개되고 비핵화의 추동력을 얻어야한다' 고 강조했고 오가다 일회상은 '비핵화가 먼저 논의되야 한다' 고 공감을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다. 양측은 또 6자회담이 재개될경우 일괄타결(그랜드바겐)안을 포하한 회담의제에 대해 관련국간 협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하다.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전형적인 공조 망언이다.

17

⊛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새해 첫 산행날. 종로 평창동 옛 북악호텔 앞에서 모두 26명이 모여 구기능선과 형제봉 능선이 서남쪽으로 남북이 뻗어있는 계곡길을 따라 일선사,보현봉을 목표로 떠나다. 100년만의 큰눈이었던만큼 아직도 산은 흰눈으로 뒤덮였고 그럼에도 산을 즐기는사람들이 산길을 내 놓은 상태였다. 눈길이 푹신푹신하여 미끄러지지 않았다. 오르는 길에 금강산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펴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형제봉능선에 올라 일선사보현봉으로 가려했으나 80이 넘으신선생님들이 많이 오시어 고개를 넘어 정릉 쪽으로 내려오다. 약수터에 이르러 김밥과 컵라면으로 요기하고 조금 더 내려와 오늘 산행에서 계획된 '2010년 6.15한마음 통일산악회선언' 행사를 진행하다. 모성용 양심수후원회부회장 사회로 권오헌 산악회장의 2010년 새새 첫 산행에 대한 여는 말 , 김교영선생님과 이경원범민련사무처장의 새해결의발언, 신현익 산악대장이 '2010 6.15한마음통일산악회선언' 을 낭독하다. 선언에서는 *이명박 정부는반북대결정책 중단과 6.15,10.4선언 이행할 것 *남북사이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 각종 대화와 함께 협력사업을 확대,강화할 것 *조건없는 금강산 개성관광 즉각 재개와 이미 민간부문에서 합의한 백두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사이 왕래의 길을 넓힐 것 등을 요구하다. 마치고 다시 눈길을 내려와 정릉버스종점을 거쳐 정릉1동 현대홈타운 김교영 선생님 댁까지 걸어오다. 해마다 새해 첫산행날은 선생님댁에서 산행하례모임(뒤풀이겸)을 가져왔는데, 이날도 선생님댁에서는 임미영,유영호 회원이 미리와 이해옥 사모님과 맛있는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음. 돼지고기 녹두부침 생선찌개 등 푸짐한음식이 마련됨. 김교영 선생님의 새해 모두 건강함과 6.15공동선언 이행과 산악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건배 제의로 풍요로운 뒤풀이가 시작되다.(관련기사참조)

18

⊛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쌍용차 노조탄압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쌍용차노조 지부장에 징역7년을 노동조합 간부 21명에게 징역 5년~2년까지 중형을 구형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파업의 동기와 내용을 보면 법원의 구조조정 결정에도 불구,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며 이같이 구형하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노조의 고통분담에도 회사측은 경직된자세를 보였으며 정부는 인재(人災)사건을 방관한 1차적 책임이 있다' 며 회사의 정리해고 경위와 문제점 정부의 방관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쌍용차노조원들에 무죄를 주장하다.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이명박정부의 비상계획 - 부홍작성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파탄내고 북한 점령통치계획(부홍) 폐기를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이 계획은 작전계획 5029와 연계되어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키고 점령통치를 감행해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목적의식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반북 대결정책의 결정판" 이라고 비판하고 또한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이 계획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를 통해 북.미 평화무드와 평화협정 정세를 뒤엎고자 하는 음모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며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적대정책의 결정판인 부홍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주장하다.

⊛ 이명박정부가 북 정권 붕괴와 이남 주도 통일에 대비해 북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통일체제의 당위성과 효용성을 홍보하는 방송 시리즈를 제작. 방송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통일연구원이 대북 교육 · 홍보 방송물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일대계' 프로젝트 비용(4년 동안 매년 8억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확보해 올해부터 집행할 예정" 이라고밝히다. 통일연구원은 이같은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간 4편 가량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공동제작해 올 가을께부터 내보낼 계획이고 참여 방송사에는 편당 5,000만원의 제작비가 정부 예산에서 지원된다고 하다.

⊛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그를 지연시킬 이유도 없'으나 '우리가 제재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 와 '판사' 의 회담이 된다' 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또한 '자주권을 계속 침해당하면서 자주권을 침해하는 나라들과마주앉아 바로 그 자주권 수호를 위해 보유한 억제력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며 대북제재해제가 6자회담 전제조건임을강조하다.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천 인근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해군기지건설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에 해군과 경찰이 합작한 공권력을 투입, 주민 10여명을 강제연행하다. 이에 항의하던 강정마을의 강동균회장과 양홍찬 군사기지만대 대책위원장,고유기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모두 52명을 서귀포경찰서(23명),제주 동부경찰서(18명) 서부경찰서(11명)로 강제연행,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국방부와 제주도 당국은 이른바 〈민관복합관광미항〉이란 이름으로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제주도민들은 아름다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 왔음. 이날 경찰의 무더기 강제연행이 있은 뒤 대책위위에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연행자 즉각석방과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다. 천주교 제주교구 고병주 신부는 '강정마을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것' 이라고 주장하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반대 국제연대가 활발히 벌어져 이날 강제연행은 전세계로 전해졌고 기지반대에 500명이 넘게 서명하다

19

⊛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김균태 판사)은 사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선고하다.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공익의 이익에반하는게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며 그 이유를 밝히다. 검찰은노명섭지부장에 징역8월, 간부 3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 했었음.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민정부 이래 문제된 바가 없는 시국선언에 대해 고발과 상식을 벗어난 기소 등, 권력을 남용한 정치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환영하고 이번 판결이 정권의 이러한 초법적 전교조 탄압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정부에 다시금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철회할 것과 기소를 이유로 한 전임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다.

- 이북이 지난달 남측이 지원한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타미플루 40만명, 리렌자 10만명)에 대한 분배 내역을 통보해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북한이 오늘 적십자 채널로 타미플루 30만명, 리렌자 8만명분을 평양과 각 시도에 골고루 분배했다고 알려왔고, 분배 내역서도 보내왔다"며, '나머지 타미플루 10만명분과 리렌자 2만명분은 국가비상방역위원회에서 비축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 검찰,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징역 4년을 구형하다. 검찰은 "당시 폭력시위로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차량 100여대가 부서졌는데 죽창 등이 사용된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시위는 조직적으로 계획됐다"며 "특히 피고인은 화물연대 본부장으로서 묵시적으로 폭력시위를 유도.지시했다"고 말한데 대해 변호인측은 "우발적으로 폭력사태가 불거진 데 대해 화물연대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폭력시위를 유도하거나 지시하지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다.

-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04년 파업을 이유로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허인)의 허인 위원장 개인 구좌까지 포함한 행계좌를 모두 압류하다. 2008년 대법원이 2004년 7월에 진행된 노조 파업에 대해 1억9308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손해배상액은 지난 2년간의 이자까지 포함해 총 3억원이다.

-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북한 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평화협정은 6자회담이 재개되어 비핵화에 진전이 있게 되면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6자회담 복귀와 재재해제 문제는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은 뒤에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다. 또한 '북한이 지금 2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일도 없었던 듯 6자회담으로 돌아와 다시 얘기하자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에 한·미·일·중·러 5개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반북 대결 망언을 되풀이하다.

20

- 한양대안산캠퍼스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다. 한양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 67명 중 33명은 지난달 31일 청소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는데 33명은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한양대에서 농성을 벌여 왔고 이 과정에서 최병을(50)씨가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다. 노조는 "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20일째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한양대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한양대는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실현하라"고 촉구하다.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8일 북 외무성이 담화 형식으로 제기한 선 평화협정 체결 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또한 캠벨 차관보는 6자회담 복귀 이전에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북의 요구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19-20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 남북은 자정을 넘겨서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 회의를 이어갔지만, 후속 개성공단 실무 회담 개최 문제를 결정짓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다. 남북 모두 후속 실무 회담에서 3통문제와 북측 근로자 숙소문제를 선결과제로 논의하자는데는 공감했지만 임금인상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자는 북측의 요구를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상방은 회의의 성격에 맞게 진지하고 실무적인 자세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면서 "향후 실무 회담 개최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정리했다.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부흥계획, 금강산 실무 협의 지체' 현인택장관과 통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어는말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규탄발언,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정부는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는 북측의 금강산.개성 관광 회담 제안에 즉각적으로 화답하고, 그 안에서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관광을 재개하는 합의를 내오라고 밝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 정부의 '부흥계획 과 관련 자금과 같은 강경대북정책을 고수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정부는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을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합리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진보연대는 이날부터 북이 금강산.개성 관광 회담 날로 제의한 26일 직전인 25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하고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용산참사 남일당에서 용산범대위 대표자, 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열다. 전 차회의, 민중열사범국민장 용산참사 1주년 추모사업 계획, 수사기록 3000쪽 공개와 수배자 구속자 현황, 협상결과 이행현황 등 보고에 이어 논의안건으로 용산참사 진상규명 등 향후대책 등을 논의하다. 용산범대위 해소와 진상규명위원회로 재편하는 것, 지난 1년의 투쟁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2월 24일 갖기로 하고 토론결과에 따라 추후결정하기로 하다.

-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1년을 맞아 참사현장에서 용산범대위 주최로 '용산

참사 1주년 추모문화제 〈용산, 진실의 꽃으로 부활하다!〉 가 이날 낮부터 진행되다. 3시부터 1부행사로 1주년 기념문화행사 '내가 살던 용산' (만화) 및 '파란집' (그림책) 출판기념식이 열렸고 4:30분부터는 '끝나지 않은 연극제' 로 여러 문예공연이, 7시부터는 'The king of art-폐허에서 외치는 소리' 를 음악 영상 사진 설치작가 공동으로 진행하다. 7:30분부터는 2부행사 '추모문화제' 로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성원 등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원호씨사회로 전철 연성낙경 사무국장의 투쟁사, 염광현 김정은 부부의 추모공연, 이덕우변호사의 수사기록관련발언, 레아 미디어 팀의 영상 상영, 낭만아저씨와 시민악대의 추모공연, 이상림고인의 부인 전재숙님이 유족을 대표하여 지난 1년 함께 투쟁해준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하다. 이어 지민주의 추모공연, 마지막으로 이수호 범대위공동대표의 이후 진상규명 등 투쟁을 이어갈 결의발언으로 모두 마치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른바 '북한정치법수용소 실태조사' 를 발표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책임연구원 백홍순 전문대교수)에 맡겨 지난해 4~12월까지 진행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6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수감자 규모는 약 20만 명에 이르는 것 으로 나타나고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인권침해가 심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사에는 이른바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및 관리관으로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 17명과 2006년 이후 강제송환을 경험한 탈북자 32명에 대한 면접 조사, 2009년 입국탈북자 322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라고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실태조사는 북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체제비판이며 그 조사내용이 신뢰성이 인정될 수 없는 터에 국가인권위의 고유임무도 소관도 아닌 것을 발표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반영한 행패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이 자료를 영문을 번역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겠다고 하다. 6.15, 10.4선언에 배치되고 외세와의 공조로 동족을 비방, 고립시키려는 반통일반인권 행패이다.

◎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민주노총, 양심수후원회 등 공동으로 '북핵 선제 타격 김태영 북방장관 발언규탄 기자회견' 을 열고 '한국의 네오콘 김태영 국방장관 사퇴' 를 촉구하다.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 유영재 평통사미군문제팀장,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등 규탄발언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0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동북아 미래포럼' 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해올 경우 이를 맞고 대응하기에는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 고 망발한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발표와 관련,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위 등 인권단체들이 반박하다. 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는 인권위원회의 친보수행보의 결정판이자 출발점 이라며 '조사방법에서 수용소생활 경험을 한 북이탈주민 17명 면접조사, 강제송환 되었던 탈북자들 면접조사, 소용소의 간접 경험자의 설문조사 등 사실을 밝히는 한계를 지적하다. 조사내용도 기존의 확인 되지 않은 일방적 증언 반복 등 신뢰가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대북인권압박과 반북대결태도로 나가고 있음을 우려하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9-20일 해외공단 공동시찰평가회의' 에서 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논의과정과 관련 '우리측은 남측이 다음번 접촉 때로 임(임금)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동의하는 조건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2월 1일 다시 접촉을 가지는데 동의해주었다' 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이러한 보도내용은 '임금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했다' 는 통일부의 설명과 정반대였음. 〈통신〉은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발기하고 공업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 지적하고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토지임대차 계약과 로임, 세금문제 등이 국제적기준과 공업지구의 특수성, 현실적조건에 부합되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 자료와 실태를 들어 언급했다' 고 전하다. 〈통신〉은 이어 '남측이 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며 우리를 심히 자극했을 뿐 아니라 어처구니없이 '돈줄' 이니 뭐니 하면서 더 지불하지 못하겠다면서 협상마저 부정하는데 대해 논박하고 문제 토의에 성실히 응해 나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고 전하다.

21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북 영덕성당에서 열린 '2010년 정기총회' 를 통해 제2기 임기를 마친 전종훈 현 대표를 유임시키기로 결정하다. 전종훈 신부는 2006년부터 4년간 사제단을 이끌어 왔다. 바로 이 기간 사제단은 한국사회의 중요 현안을 주도하며 정의와 인권에 크게 기여했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상반기 북한에 8백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OCHA는 북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에 긴급구호기금(CERF)를 통해 8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상반기 1천만 달러, 하반기 9백만 달러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CERF의 브라이언 그로간 인도주의 업무 담당관은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이 자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산출해 신청한 액수를 바탕으로 8백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며 지난 해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매우 적었던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져 상반기에 기금을 지원한다고 미국의 소리〈VOA〉에 밝혔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신하의 언론본부는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다. 언론본부는 성명에서 "한. 미 두 나라는 6자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평화협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 에서 정전협정 서명국의 하나인 중국이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으나 정작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긴요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고 주장하다.

◎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무원노조는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독립 훼손 규탄 기자회견' 을 열어 한나라당 · 검찰의 사법부 뒤흔들기 즉각 중단을 촉구하다. 공무원노조는 남영현 수석부위원장은 오병욱 법원본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은 사법부 뒤흔들기는 헌정사상 가장 악랄한 사법부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보수단체 회원 1백여 명이 몰려와 이용훈 대법원장과 문성관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문성관 판사의 화형식을 진행하는 가하면, MBC카메라 기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가하는 난동을 부리다

◎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국민서명운동본부'는 출범식을 열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히다. 운동본부는 3월까지 300만 명을 1차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천주교 · 불교 · 개신교 · 원불교 등 종교계가 신자들의 서명을 적극 받기로 하고 전 국민적 서명운동으로 이 사업을 무효화 시키겠다"고 밝히다. 운동본부에는 명진스님, 박경조 주조, 최덕기 주교 등의 종교계 인사들과 이상돈, 이정전 교수 등 학계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제 785회 목요 집회가 열리다. 김동순 민가협사무국장의 사회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여는 말 전국철거민연합 사당대책위원장 최기혜님의 용산참사 진상규명및 무법적 철거규탄발언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님의 국가보안법 남용규탄발언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구속된 남경남, 박래군, 이종회 동지를 석방하라! 는 내용의 성명서를 민가협회원이신 김정옥 어머님이 낭독하다.

22

◎ 국가인권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 차단조치 등으로 초래되는 인권침해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관행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권고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받아들이지않음에 따라 권고사항에대한 경찰의 조치결과를공표했다. 먼저, 집회의 참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과도한 행위를 자제하라는 권고에 대해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임을 강조하고또, 집회금지조항 적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방식 운영을 밝히며, "충분한 검토", "최대한 보장"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하다. 집회금지조항 적용 시 신중히 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신고단체 등의 과거 시위 전력, 유인물 내용, 폭력시위용품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해 판단하고있고, 교통 불편의 심각성에대해서도 충분한 검토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며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이 중복으로 신고된 집회가 모두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집회신고 접수 시 시간과 장소가 경합될 경우 시간이나장소를 변경하도록 우선 조정하고, 집회 성격상 상호 충돌한 개연성이 없거나, 적절한 경찰력의 이용으로 쌍방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집회시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히다. 국가인권위는 2008년 1월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 차단조치등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행의 시정을 권고했다.

◎ 북이 오는 26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해왔다고통일부가 밝히다.

◎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는 지난 19-20개성남북경협 협의사무소에서 열린 '남북해외공단 공동시찰평가회의'를 둘러싼 남북 간 '진실게임' 이치열했다며 통일부의 〈거짓말인터뷰〉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히다. *남측-북측 기조발제나 협의과정에서 국방위대변인(부흥계획비난)성명 등 공단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언급이 없었다(19일 오후 통일부관계자) *북측-우리는 접촉에서 남조선 당국이 도발적인 '부흥계획'을 완성하여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장애를조성한 데 대해 언급했다(22일 오후 〈우리민족끼리〉)* 남측-2월1일 실무회담 의제로 3통문제와 숙소건설문제라고 확실하게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날 나오면우리는 그것을 토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21일 오후 김영택상 근회담대표 브리핑)*북측-남측이 다음번 접촉 때 로임(임금)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2월 1일 다시접촉을 가지는데 동의해 주었다(21일 오후 〈조선중앙통신〉) *남측-북측에서 이야기한 것에 토지임대료는 빠졌다.(21일 오후 김영택 대표브리핑) *북측-우리는 그에 (유례없는 특혜)맞게 토지임대료문제를 다시 협의 해결할 것을 제기했다(22일 오후〈우리민족끼리〉) *남측-그런(북이 제시한 임금금액 등) 것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다 (21일 오후 김영택) *북측-해외경제특구근로자 로임은 적어도 200~300달러 또는 500달러 수준이지만 개성공업지구 로임은 겨우 57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22일 오후 〈우리민족끼리〉)(후원회소식 220호 다른 기사보심)

23

◎ 광주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열린 5.18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5.18민주유공자단체 통합 및 민중항쟁 30주년 특별기획사업 설명회'에서 5.18단체들이 오는 5월까지 단체를 통합하고, 5.18 행사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다. 통추위가 통합을추진하려는 단체는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5.18 기념일까지 3개 단체로 나뉘어 있는 5월 관련단체를 통합해 하나의 공법단체로 출범시켜 국가보훈청에 등록하기로 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기념행사도 기획과준비는 단체별로 하되 통합추진위 이름으로 5월 행사는 공동 주최하기로 하다.

◎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6자회담복귀조건으로 *미 중과의 평화협정체결 교섭 *북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미간양자협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제시했다고 평양을방문하고 베이징에 도착한 이탈리아 의원단 오스발트단장이 밝혔다고 니혼게이자(日本經濟)신문이 23일 보도하다.

24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성명을 발표,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공격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명은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으로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6.25의 참변이 되풀이 될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명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남조선 괴뢰당국의 그 어떤 시도에대해서도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행동으로 지휘의 중심을 비롯한 중요 대상물들을 송두리째 드러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괴뢰들의 반북대결책동을 우리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 성명은 경고했다.

◎ 이북의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글에서 '통일부를 아예 없애려 획책했던 이명박정부가 애초부터 통일부를 존치시킨 이유가 우리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한 비열한 모략을 꾸며대며 통일에 제동을 걸자는 데 있었다'며 '현인택과 같은 대결미치광이에게 장관벙거지를 씌워준 것은 그 대표적 준거'로 삼았다고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25

-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광우병범대위와 전문가 자문회의, 교수노조, 민교협, 민언련, 수의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함여연대 등 공동으로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전문가입장 및 검찰, 한나라당, 보수신문의 해당재판부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한나라당 및 보수신문은 사법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민교협 김서중 공동대표의 취지발언, 광우병 전문가 자문위원회 우희종 교수, 보건의료단체 우석균 정책실장, 국민건강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 언론노조 최상재위원장 등 PD수첩의 과학적 근거에따른 국민건강권 차원의 정당한 보도를 옹호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한나라당, 보수신문, 극우단체의 폭력행패를 규탄하다. 마지막으로 이강실진보연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 정부는 25일 통일부 현인택장관 명의로 북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지난 14일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명의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2월 8일 개성에서 갖자'고 수정제의하다.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명의로 된 제의를 조선노동당 중앙위 통전부로 바꿔 제안하는 등은 또 다른 걸림돌을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영등포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노조, 전교조 말살책동 검경기획수사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는 간부들의 활동을 특정정당과 연계시켜 시국선언지체를 정치활동으로 몰아가려는 공안당국의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성토하다. 두 노조는 '압수수색은 애초부터 시국선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며 '이를 빌미로 수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검찰총장 스스로가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별건수사를 기획한 것'이라고 규탄하다. 이보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전교조, 공무원 노조원들에 대한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납부사실을 확보하고 수사대상자 290여명을 1차로, 6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음.

- 후원회소식 219호 최종교정기획사에 넘기다(권오헌 모성용)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가 용산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건물에서 참사 발생 371일 만에 25일 완전히 철수하다. 범대위 관계자들과 인근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이날 건물 1층에 설치된 농성 천막과 숙소를 철거하고, 주변의 현수막과 걸개그림 등을 떼어내다. 범대위는 이날 이후로 본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철거민권익보호 운동을 벌이는 등 기존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류주형 범대위 대변인은 "당분간 조직은 예전과 똑같이 유지할 계획이며,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새 조직의 구성 여부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나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하다.

26

- 서울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공무원·교사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생민주국민회의 참여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교사·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 가입 관련 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수사"라고 규탄하다

-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등은 97차 평화군축 집회를 열고 국방지침 작성 중단, 집속탄 폐기 및 집속탄 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다. 유정섭 평통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집회에서는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 이주은 인천평통사회원, 제주 강정마을 강동권 회장의 규탄발언과 김현숙 부천평통사 사무국장의 2009년 국방예산 삭감활동에 대한 투쟁보고에 이어 액운을 날려버리고 투쟁의 결의를 높이는 박깨기 상징의식이 진행되다. 모성용 양삼수 후원회 부회장이 대마종속 심화, 남북대결 전면화, 국방비 팽창 불러오는 불법적 한미 '국방지침' 작성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요구서한을 낭독하다. 집회 후 요구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다.

- 이북이 서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YTN〉이 군 소식통을 인용, 이날 오후 보도했다. 방송은 이 소식통이 "북한이 오늘(26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4km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과거 북한의 행적으로 볼 때 해상에서 미사일시험발사 등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을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 219호 발송작업이 있었습니다. 문상봉, 김영식, 박희성 선생님과 소수영, 박윤경, 김성환, 신정현, 임미영, 모성용이 함께했습니다.

27

- 북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 해상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고 남측 군이 이에 경고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NLL 남측 지역까지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뒤 이어진 사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9시 5분께 해안포 수발을 백령도 인근 NLL 북측 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에 남측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사거리 3-4km 발칸포로 즉각 경고사격에 나섰다. 양측이 허공에 대고 사격한 것으로 이루런 인명,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원세훈 국정원장, 김태영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는 긴급 안보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이북의 조선인민군 총 참모부는 '보도' 형식으로 연례적인 포실탄 사격훈련이라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새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2010년 정기총회'가 열리다. 1부 기념식에서는 이병주 집행위원장 사회로 강민조 이사장의 인사말, 권오헌 양삼수 후원회 명예회장(고문)의 격려말, 20여년 사업보고와 일정별 활동보고, 민보상법 대응사업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사업 보고 등이 있었음. 2부 총회에서는 계승연대 2009년 사업보고 및 승인절차, 2009년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절차, 계승연대 3기 임원 선출에서는 현 이사와 감사등이 유임되다. 이어 2010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이 있었음.

-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6.15북측위 위원장 안경호)는 6.15공동선언 10돌을 맞아 민족공동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체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로동신문〉을 인용, 언론들의 보도하다. 〈호소문〉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10돌을 조국통일운동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거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내어 민족자주의시와 생활력을 다시 한 번 만방에 과시하자'며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돌을 맞으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층 인사들

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개최할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 고 밝히다. 또한 '북과 남, 해외의 전체조선민족은 6.15북남공동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10.4선언발표 5돌이 되는 2012년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일대 이정표로 되게 하자' 고 호소하다.

후원회 소식 219호를 회원 1,020부 해외 17부 발송하고 전국양심수들에게 후원회소식 219호, 민족21, 영치금을 보내다

28

용산 국방부앞에서 평통사 양심수후원회 범민련남측본부 등 주최로 제2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열리는 SPI회의가 한·미동맹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시켜 대미 종속성과 침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유연성을 확보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다.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적 대응 및 협력체계를 총괄적으로 담은 한·미 '국방지침' 제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이유지되는 속에서 한반도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보장한다든지 핵 확장억지를 구현한다는 것은 대북 (핵)선제공격과 북한 전령을노리는 공격적군사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라고주장하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신연합작전계획 5012' 에 대한 논의가이뤄질 것이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형식상 병렬형 지휘구조가 갖춰 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은단일한 '연합' 지휘체계가 작동된다는 뜻" 이라고 지적하다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제786차 목요집회가 열리다. 김동순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님의 여는말, 이경원범민련사무처장의 '무분별한 출석요구 남발하는 공안당국 규탄' 발언과 모성용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의 '현 교도행정의 퇴행화와 인권침해' 발언이 있었음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화물연대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김달식 본부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간부 박종태씨의 죽음으로격양돼 있는 조합원들이 폭력시위를 벌일 것으로충분히 예측됐음에도 적절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력시위를 암묵적으로 공모했을 위치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고 하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무죄를 선고했음.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는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등을적용하여 징역 4년을 구형 했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국가가 '남북어부' 들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어 인권침해 및 처벌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히다. 진실화해위는 "1983년 국가보안사령부가 경찰이 남북어부 이상철을 협조망으로 이용하여 간첩 검거를 위해 접선하게 한 행위를 간첩행위로 왜곡, 조작하여 처벌받게 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고 발표했다. 또 '남북귀환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 위반 사건' 에 대해서도 1960년대 전북도경찰청이 남북귀환어부 최만춘 등을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하여 장기간 불법구금한 채 가혹행위를 가한 후 간첩행위 등으로 처벌받게 한 사실을 밝혀" 냈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위는 이들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 이정한 바에 따른 재심과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남북귀환어부사건으로 그동안 태영호 사건, 정삼근사건, 서창덕사건, 강대광사건, 백남욱 사건, 임봉택 사건, 이상철 사건, 최만춘 사건, 정영 사건 등 모두 9건의 사건이 신청 접수되었고, 9건 모두 진실규명 결정이 되었다" 고 밝혔다.

29

용산경찰서 앞에서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범민련 지도부에 대한 무분별한 출석요구 남발하는 공안당국규탄 기자회견 을 열고, 공안당국의 수사권 남용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구 해체를 촉구하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수용돼 보석 석방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이규재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정책위원장등 3명에 대해 자체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는이유로 경찰이 출석요구서를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규탄하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범민련 3명에 대한 출두요구는 보석 석방에 대한 분풀이에 다름이 아니며, 범민련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지방경찰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소환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한국진보연대안지중 사무처장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범대위 상임공동대표),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 장경욱 범민련 탄압사건 변호사(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등 규탄발언후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이날 이경원 사무처장조사에는장경욱 변호사가 입회했음.

민주노총 강서구등촌동 88체육관에서 제49차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총 732명 대의원 가운데 376표(52%)를 얻은 기호 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를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다 상대후보였던 허영구 이정행 후보조는 275(36%)에 그치다 또한 여성명ㅇ부부부위원장에 정혜경후보와 노우정후보가 선출 됐고 일반 명부 부위원장인 정희성 후보와 정희헌후보가 뽑혀 새 지도부체계를 갖추다 김영훈위원장은 철도노조 18대노조위원장 전국운수산업노조초대위원장. 2006년에는3.1전국파업으로 구속되기도 했음

30

민주노동당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정ㅊ타공장금모 민주노동당정치탄압분쇄 결의대회' 를 열고 경찰이 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과 민주노동당을 연계한기획수사를 규탄하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투표사이트 불법해킹 등 묵과할 수 없는 정당파괴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 등을 규탄하다. 이정희홍희덕의원과 오병윤사무총장등이 잇달아 규탄발언하다.

민주노동당은 서울능동 어린이 대공원돔 아트홀에서 '창당10주년 기념식 및 2010년 지방선거 승리문화제' 를 열다. 민주노동당은 1997년 창당출석석을 다진 국민승리21 '로 시작 1999년 진보정당 창당 준비 위원회를 거쳐 2000년 1월 권영길의원을 초대대표로 창당했고 07년 권영길의원이 대통령후보로 나서 창당 2년만에 95만표를 얻다 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3.1%를 획득하여 지역구에서 2명의 당선 비례대표 8명이 당선 되기도 하다. 그러나 08년 분당사태로 오늘 5명의 국회의원으로 줄어들었음. 강기갑대표의 기념사 민주당 정세균대표 창조한국당 송영오대표 진보신당 노회찬대표국민참여당 김영래 최고의원 등 축사 각계대표의 영상 축사 당원들의 합창과공연, 퍼포먼스 "농민평생당원 입당식 이 이어졌고 강력한 야권연대로이명박 정권과한나라당 심판을결의하다.

옴시롱감시롱 총회가 서산 박근직 김봉례회원 집에서 열리다(소식지참조)

2010년 1월 재정보고

단위 : (원)

입금내역	입금 총액	9,012,374
	지　　로	605,000
	씨엠에스	2,680,000
	국민은행	4,080,000
	농　　협	655,000
	제일은행	70,000
	하나은행	30,000
	현금입금	750,000
	유가증권	50,000
	입금 합계	8,920,000
	전월 이월	92,374
	총　액	9,012,374

지출내역	지출 총액	6,540,785
	가. 양심수관련	1,347,910
	양심수 영치금, 민족21 , 소식지 발송, 면회 사업 등	
	나. 출소장기수 지원	1,204,340
	만남의집 운영비, 출소장기수 관련 지원	
	다. 소식지관련	791,620
	소식지 발행, 발송 및 발송작업	
	라. 사무국 활동비	1,800,000
	상근일꾼 2명의 활동비	
	마. 연대사업	150,000
	연대사업 전민특위진보연대 투쟁사업장지원 등	
	바. 교통 · 통신비	303,980
	인터넷 전화 및 통신요금	
	사. 회원사업 및 운영비	942,935
	회원사업 및 운영비 회원경조사비회비이체수수료 홈페이지운영 등	

차기 이월액	8,920,000(당월입금)+92,374(전월이월금)−6,540,785(당월지출)=2,471,589

열심히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로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은행 납부시 지로용지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확인할 수 없어 소식지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내주신 분들

2010년 1월

♣ 정성어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대옥 10,000
강덕환 20,000
강성훈 30,000
강순례 10,000
강순정 30,000
강순희 50,000
강응길 10,000
고재형 10,000
고제헌 20,000
고춘식 20,000
공진하 20,000
곽선옥 10,000
구본승 5,000
국승용 10,000
권기덕 10,000
권기순 10,000
권오헌 50,000
권정기 10,000
김경선 10,000
김경중 10,000
김광선 20,000
김광태 10,000
김교영이해옥 20,000
김귀옥 10,000
김규철 50,000
김기남 10,000
김기석 10,000
김길자 50,000
김낙중 50,000
김난영 10,000
김덕진 10,000
김동만 10,000
김래곤 10,000
김력균 5,000
김명호 20,000
김명희 10,000
김민정이보균 20,000
김민제 10,000
김병석 10,000
김병철 10,000
김보영 10,000
김복배 10,000
김삼희 20,000
김상일 20,000
김선민 10,000
김선생님 100,000
김선영 10,000
김선옥 20,000
김성철 10,000
김세균 20,000
김수진 5,000
김순자 10,000
김영산 10,000
김영수 30,000
김영식 10,000
김은 10,000
김은수 20,000
김은희 10,000
김인순 10,000
김재원 10,000
김재율 5,000
김재헌 5,000
김재현 20,000
김정라손정목 20,000
김정현 5,000
김제영 5,000
김종명 10,000
김지영 100,000
김지현 10,000
김지호 5,000
김진우 10,000
김진한 10,000
김창수 5,000
김충례 30,000
김태상 5,000
김태원 10,000
김태준 100,000
김필상 10,000
김한상 10,000
김현식 20,000
김현애 20,000
김혜식 10,000
김혜정 5,000
김호현 100,000
김희찬 5,000
김희철 10,000
나경훈 10,000
나명주 10,000
나순석 10,000
남택진 10,000
노혁도은주 30,000
노희순 10,000
두형진 5,000
류정은 15,000
류제춘 10,000
류종인 10,000
모아라두리세미 30,000
모지희 20,000
문상봉 10,000
문용철 10,000
문일승 10,000
문홍주 10,000
박강혁 10,000
박귀영 10,000
박길용 100,000
박대권 10,000
박선후 10,000
박세용 5,000
박세준 100,000
박영만 10,000
박유경 50,000
박유미 10,000
박은영 20,000
박재만 10,000
박점식 200,000
박정규 10,000
박정덕 10,000
박종기 10,000
박중기 10,000
박진도 10,000
박진희 10,000
박태동 20,000
박현숙 10,000
박현희 10,000
박형성 5,000
박호철 20,000
박희성 10,000
방성일 10,000
배인원 10,000
배정환 10,000
백설애 10,000
백승호 10,000
백창석 5,000
변세현 30,000
삼성일반노조 50,000
서승종 10,000
서애숙 10,000
서은숙 10,000
서정복 10,000
서화 450,000
석규관신경숙 10,000
설혜경 10,000
성경화 300,000
성영미 10,000
성현국 5,000
소미영 10,000
손미아 10,000
손일순 20,000
손혜련 40,000
송록희 10,000
송영민 10,000
송유정 20,000
송찬길 10,000
송창학주경임 30,000
시윤정윤도윤 300,000
신귀영 2,000,000
신귀영 10,000
신용승 10,000
신준호 10,000
신준호 10,000
신현익 50,000
심주이 10,000
안관혁 10,000
안동석 5,000
안샘 40,000
양원진 10,000
양인철 10,000
양해용 10,000
엄기준 10,000
여혜정 10,000
오경희 10,000
오순균 10,000
오영숙 5,000
오윤석 10,000
오정우 10,000
오철근 10,000
유기수 10,000
유기진 30,000
유기진 10,000
유명섭 5,000
유병호 10,000
유성경 20,000
유승옥 30,000
유영호 10,000
유용태조계숙 40,000
윤경숙 20,000
윤규승 10,000
윤성근 10,000
윤성남 10,000
윤영돈 30,000
윤주미 10,000
윤현숙 65,000
윤형근 5,000
은종복 10,000
은종복 10,000
이강주 10,000
이경도 10,000
이광연 20,000
이남현 500,000
이동근 30,000
이득형양계숙 40,000
이명국 5,000
이미선 5,000
이민숙 30,000
이병건 20,000
이봉재 10,000
이봉주윤노숙 200,000
이상희 10,000
이상희 10,000
이성우 10,000
이성우 10,000
이성하 30,000
이수일 20,000
이승헌 5,000
이영주 5,000
이용준 20,000
이원갑 10,000
이윤 10,000
이윤섭이정희 30,000
이윤아 10,000
이은숙 10,000
이정규 10,000
이정숙 50,000
이정이 10,000
이정훈 구선옥 40,000
이지은이병민 30,000
이창복 10,000
이창희 10,000
이태성 10,000
이현근 50,000
이현심 10,000
이혜경 20,000
이호승 10,000
이호중 10,000
이효철 10,000
익명 30,000
인미화 10,000
임미영 20,000
임헌영 50,000
장경욱 100,000
장필순 20,000
장화옥장민호 20,000
전미라 10,000
전영선 10,000
전형범 20,000
정관호 10,000
정길상 10,000
정만기 5,000
정명숙 20,000
정명희 10,000
정미연 10,000
정상원 10,000
정은 20,000
정종만 10,000
정형근 10,000
정혜은 10,000
정혜은 10,000
정훈철 10,000
조규응 20,000
조동문 10,000
조봉기 10,000
조숙희 10,000
조순덕 10,000
조용길 10,000
조진숙 10,000
조진영 10,000
조환구 5,000
지경근 10,000
진재영 김정석 10,000
최광운 10,000
최대식 10,000
최범림 10,000
최영주 20,000
최옥순 10,000
최우승 10,000
최은선 20,000
최형식 10,000
최화섭 10,000
탁무권 50,000
편상범 20,000
한영선 30,000
한재경 10,000
한정숙 5,000
허행란 10,000
홍명자 10,000
홍미라 5,000
황민학 20,000
황철우 200,000
황해평 5,000

자동이체 하실 분은 아래 은행을 이용해주세요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하나은행 271-810145-91205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헌 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헌양심수